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벤처천억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전략 연구**

발간사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의 방식과 성과를 나누는 방식을 함께 바꾸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의 둔화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가운데,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은 산업과 일자리의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특정 산업과 기업에 성과가 집중되고, 지역·기업·세대·계층 간 격차와 자산불평등이 확대되면서 경제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고르게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은 양적인 확대만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산업과 기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회와 성과가 지역과 기업, 노동자와 청년 등 사회 구성원에게 폭넓게 확산되어야 합니다. 성장과 분배를 서로 대립하는 과제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혁신을 통해 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2026년을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시점으로 인식하고, 기존의 대기업·수출·부동산 중심 성장구조를 넘어 벤처·인공지능·문화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한편, 금융과 노동시장의 제도를 혁신하고 불평등과 청년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성장의 총량뿐 아니라 성장의 기회와 과정, 성과의 배분까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고부가가치·고용친화적 산업구조와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행 경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본 시리즈는 전체 연구의 문제의식과 방향을 제시하는 **총론**, 새로운 성장동력과 혁신생태계를 다루는 **제1부**,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완화하고 포용적인 일자리 체계를 모색하는 **제2부**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보고서는 독립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고 그 성과를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으로 확산한다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론**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둔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이중의 과제를 진단하고, 기존 성장모델을 넘어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전체 연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제1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엔진: 혁신생태계 조성」은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다룹니다. 벤처기업의 창업 이후 스케일업, 제조와 현실공간에 AI를 접목하는 피지컬 AI, 문화와 산업이 결합된 K-컬처, 혁신산업과 지역경제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2부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성: 포용적 일자리 전략」은 성장의 기회와 성과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줄이고,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는 노동시장과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자산불평

등과 세대 간 기회 격차, 일자리와 교육·훈련에서 이탈한 청년의 사회적 재진입, 인구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살펴보고,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번 연구가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이 직면한 모든 문제에 완결된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제성장과 일자리, 혁신과 포용을 각각 분리된 정책 영역으로 접근해 온 기존의 논의를 넘어, 이들을 하나의 전환 전략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담당자, 산업계와 노동계, 연구자와 시민들이 새로운 성장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연구진과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앞으로도 산업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혁신의 성과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7.31.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본 연구의 구성



요약

1. 연구 배경과 문제의식

- 한국경제는 저출생·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 과거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 특히 대기업 중심 산업이었으며 짧은 기간 고도 압축성장을 달성하는데 기여
-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AI혁명과 디지털 전환, 기술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을 변화시키고 있음. 과거에는 대규모 설비투자과 노동력 공급이 성장의 핵심 요소이었지만 이제는 혁신기술과 기업가정신, 그리고 이를 시장에서 실현하는 혁신 벤처기업이 성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 특히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사례는 혁신기업이 국가 경제성장과 생산성의 핵심 동력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실임을 보여 줌. 한국도 기존 제조업 중심 성장모델을 보완할 새로운 성장전략을 시급히 모색해야 하며 그 중심에 벤처기업·스타트업을 스케일업(Scale-up)한 벤처천역기업이 있음.

2. 벤처천역기업의 전략적 중요성

- 그동안 벤처정책은 창업기업 수 확대와 벤처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두어 짐. 그러나 창업기업 수가 많아지면서 영세성과 성과 부실 등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표출되는 문제를 경험함
- 실제로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 수출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일정 규모 이상 스케일업한 성장기업에 의해 주도
- 이러한 점에서 벤처천역기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벤처천역기업은 단순히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스타트업 단계의 기술혁신이 실제 산업과 시장에서 검증된 결과물이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핵심 기업군임
- 벤처천역기업은 스타트업과 유니콘기업 사이를 연결하는 성장허리층(middle growth layer)으로 기능함. 스타트업이 혁신의 씨앗이라면 벤처천역기업은 혁신을 산업화하고 시장으로 확산시키는 성장 플랫폼으로 촉매제 역할
- 실제로 벤처천역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수출 역량이 우수하며 고숙련 인력을 다수 고용하고 있음. 따라서 벤처천역기업의 증가는 단순한 기업수 증가가 아니라 생산성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의미함

3. 한국 벤처생태계의 발전과 성과

가. 한국 벤처기업 발전 과정

- 벤처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시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라고 할 수 있음
 -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산업구조 전환과 벤처생태계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함. 대기업 중심 성장모델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제기
- 정부는 벤처기업을 외환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로 인식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코스닥(KOSDAQ) 시장 활성화, 벤처캐피탈 투자 확대, 창업보육센터 설립, 기술 보증 지원 강화 등 추진
- 1차 벤처붐은 한국 벤처생태계 형성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음.
 - 벤처캐피탈 제도, 코스닥 시장, 기술보증 체계, 창업 보육 센터 등 핵심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기업가정신과 기술창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
 - 닷컴버블 붕괴 이후 2002년 무렵부터 한국 벤처생태계는 조정기를 경험
- 2010년대 이후 한국 벤처생태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함
 -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모바일 플랫폼 성장, AI, 빅데이터, 바이오, 핀테크,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벤처기업이 다시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주목받기 시작
 - 2차 벤처붐 시기의 중요한 변화는 벤처기업 성장 단계가 다층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으로 과거 벤처기업은 창업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스케일업의 중요성이 강조됨
- 이 과정에서 벤처천역기업은 한국 벤처생태계의 새로운 중심층으로 부상함
 -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하며 산업생태계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성장기업군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여 2005년 약 78개 수준에서 2024년 약 985개 수준으로 증가
 - 이는 단순한 기업 수의 확대를 넘어 한국 벤처생태계가 생존 중심 단계에서 성장 중심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변화

나. 한국 벤처기업 양적·질적 성장과 산업분포 특징

- 벤처기업수는 1999년 4,934개에서 2023년 36,959개로 증가하여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24년 35,857개로 다소 감소하였는데, 혁신성장 유형 벤처의 비중은 상승하여 과거 벤처생태계와는 달리 혁신과 스케일업 단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상을 반영
- 벤처기업이 가장 많은 업종은 '소프트웨어개발' 분야로 2014년 3,132개에서 2024년 4,921개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벤처기업 중 13.7%를 차지함
- 정보통신 3,321개, 기타서비스 3,265개 순으로 기업 수가 분포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서비스 분야는 2014년 이후 연평균 19.1%의 빠른 증가
- 2014~2024년간 업종별로 나타나 벤처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이 뚜렷함
- 제조업 벤처기업수는 연평균 1.6% 증가에 그친 데 비하여 서비스업은 7.4% 증가하였고, 비중도 제조업은 동 기간중 13.1%p나 하락하고 서비스업은 12.3%p 증가

다. 벤처천역기업의 성장과 산업분포, 고용

- 1998년 이후 2024년 말까지 누적된 벤처천역기업은 총 985개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23년 대비 8.5% 증가한 수치
- 벤처천역기업 산업분포는 일반 벤처 산업분포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벤처천역기업이 많은 업종은 '기계/자동차/금속'과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이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24.4%에 불과
- 제조업은 71.9%를 차지하며 특히 첨단제조업의 비중 상승이 두드러짐
- 벤처천역기업은 일반 스타트업과는 구별되는 고용 특성을 가짐
- 창업 초기 스타트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조직 규모가 작고 사업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제한적이지만 벤처천역기업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시장성을 확보한 기업군이라는 점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용 창출이 가능
- 2024년 전체 벤처기업 고용자 수는 전년대비 11.4% 감소하였지만 벤처천역기업의 고용자 수는 2.2% 증가

4. 국제기관 평가를 통해 본 한국 벤처생태계 평가 순위

- StartupBlink, Startup Genome, GEM 등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전문 조사기관의 평가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스케일업 단계에서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을 보여줌

- Startup Genome의 GSER 2026은 서울이 세계 10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GEM은 NECI 조사에서 한국을 8위에 올리는 등 연구개발 투자, 디지털 인프라, 인적 자원, 시장 역동성 등에서 높이 평가
- 반면, StartupBlink의 GSEI 2025 순위 20위, IBEI 2026 순위 32위 등 세계 상위권에서 크게 멀어지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 순위에 비해서도 뒤처지는 평가

5. 정책적 시사점

- 향후 한국 벤처천역기업 정책은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첫째, 한국이 보유한 디지털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 연구개발 역량 등 강점을 더욱 강화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분야의 벤처천역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 둘째, 글로벌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성장 금융 확대, 글로벌 투자자 유치, 해외 인재 확보, 해외 시장 진출 지원체계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 셋째, 정책의 진자현상을 극복하고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창업-스케일업-벤처천역기업-유니콘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며 스케일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운영
- 결국 한국 벤처정책의 목표는 더 많은 스타트업을 만들고 더 많은 벤처천역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야 함
 - 벤처천역기업은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며,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혁신, 수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주체
 - 또한 벤처천역기업을 정책 거버넌스의 가장 중심에 두고 창업정책, 산업정책, 지역정책, 고용정책, 통상정책을 연계하는 통합적 정책체계를 구축
 - 벤처천역기업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스케일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업국가(Startup Nation)를 넘어 혁신성장국가(Innovation Nation)로 도약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벤처천역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전략 연구

CONTENTS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6
3. 연구의 차별성과 정책적 의의	10
II. 벤처기업의 이론적 배경과 혁신경제학	13
1. 벤처기업 개념과 특성	15
2. 벤처캐피탈과 혁신금융	19
III. 한국 벤처기업의 발전단계와 정책 진자현상	23
1. 1차 벤처붐(1997~2001년), 그리고 조정기와 재도약기(2002~2012년) ·	25
2. 2차 벤처붐과 스케일업 전환기(2013~2025년)	28
3. 벤처정책의 진자현상과 정책 일관성 문제	30
IV. 한국 벤처생태계의 구조 변화 분석	33
1. 벤처기업의 양적·질적 성장	35
2. 벤처기업 산업분포	38
3. 벤처기업 고용현황	41
4. 벤처기업 지역별 현황 및 지역생태계 구조	43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벤처천억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전략 연구

CONTENTS

V. 벤처천억기업의 구조적 역할과 경제적 의미	47
1. 벤처천억기업 현황	49
2. 벤처천억기업과 일자리 효과	56
3. 벤처천억기업의 혁신 및 수출	58
4. 벤처천억기업의 유니콘글로벌 기업 전환	60
VI. 벤처생태계 국제비교	63
1. 국제기관의 벤처생태계 환경평가 비교 분석	65
2. 국제 비교에 근거한 한국 벤처생태계의 SWOT 분석	73
3. AI 벤처투자 동향 국제 비교	76
VII. 벤처천억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시사점	79
1. 정책 방향 미세조정 필요성	81
2. 벤처천억기업 중심 성장사다리 구축 전략	83
3. 글로벌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 전략	84
4. 벤처천억기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85
5. 정책 거버넌스 혁신과 정책의 진자현상 극복	86
참고문헌	87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벤처천역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전략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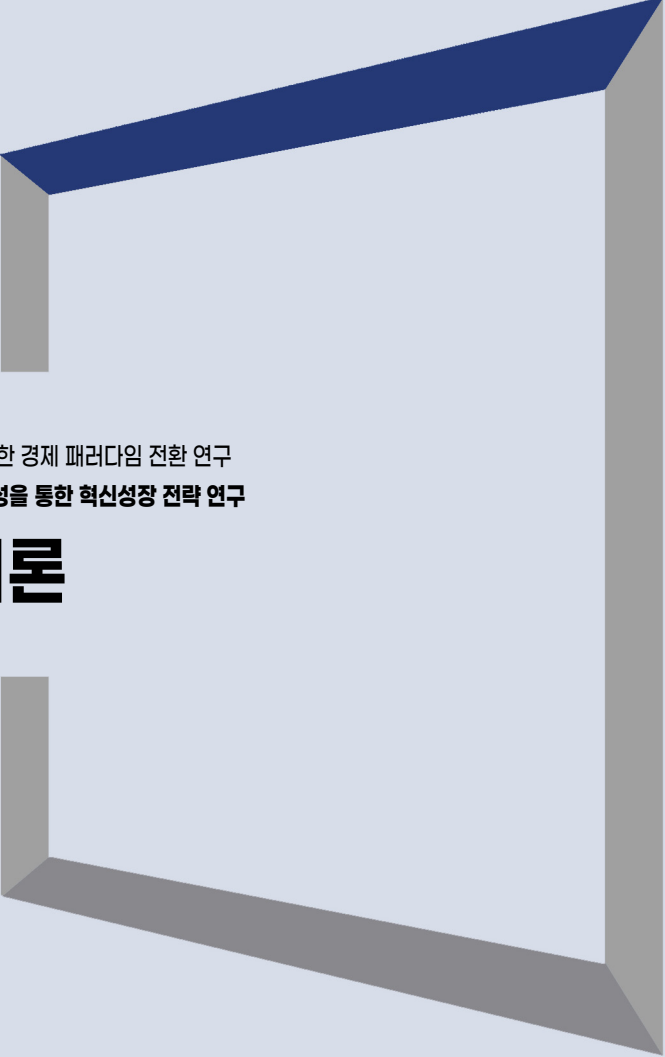
표 목차

〈표 1〉 주요 활용 자료 및 분석 목적	8
〈표 2〉 과거 정부 벤처 정책 기조 비교	32
〈표 3〉 벤처확인제도의 변천: 벤처확인유형의 변화	36
〈표 4〉 벤처기업 종사자 수 증감현황	41
〈표 5〉 벤처천역기업 매출 규모별 분포 현황	51
〈표 6〉 국가별 벤처·스타트업·유니콘 기업 개념 비교	60
〈표 7〉 혁신가 사업환경 평가지수 순위 (2026)	68
〈표 8〉 국제기관의 스타트업 생태계 비교 평가에 기초한 한국 벤처생태계 SWOT 분석	75
〈표 9〉 AI 분야 벤처투자 유치 상위 12개국 현황	77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벤처천역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전략 연구

그림 목차

[그림 1] 벤처생태계 성장사다리 및 연구 분석체계	7
[그림 2] 벤처기업수, 매출액, 종업원수 추이	36
[그림 3] 연도별·유형별 벤처기업 비중 추이	36
[그림 4] 벤처기업 첨단산업과 일반산업 비중 추이	39
[그림 5] 벤처기업 3대 업종 비중 추이	39
[그림 6] 전체 업종별 비중과 벤처기업 업종별 비중 비교 (2023년 KSIC 10차 대분류 업종)	40
[그림 7] 지역별 벤처기업 현황	43
[그림 8] 수도권, 비수도권 벤처기업 비중 차이	43
[그림 9] 지역별 상위 업종 비교(2014~2024)	44
[그림 10] 연도별 벤처천역기업 현황	49
[그림 11] 벤처천역기업의 업종별 분포 현황	50
[그림 12] 벤처천역기업 및 고성장 벤처천역기업 종사자 수	52
[그림 13] 벤처천역기업 권역별 분포 현황	53
[그림 14] 벤처천역기업 업종별 평균 연구개발비	54
[그림 15] 전체 벤처천역기업 수출기업 비중과 수출 실적	55
[그림 16] 2025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 글로벌 순위	67
[그림 17] GSER 2026 세계 상위 10개 스타트업 생태계	71
[그림 18] 2025/2026 GEM NECI 평가 순위 상위권 20개국	72
[그림 19] 전세계 AI 분야 벤처투자 추이	76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전략 연구

I. 서론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한국경제는 저출생·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잠재 성장률 하락 압력이 확대되고 있음
 - 과거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제조업 중심 성장모델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혁명 확산 등으로 산업구조 변화 속도가 가속화
 -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반도체 및 첨단산업 중심 산업정책 강화 등은 혁신기업 육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
 - 이에 따라 요소의 양적 투입 중심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기술혁신과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혁신주도 성장전략으로 전환이 시급
- 최근 주요국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start-up)을 국가 성장전략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혁신생태계 구축을 강화하는 추세임
 -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하였고, 민간 중심 성장금융과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해 글로벌 혁신기업을 지속적으로 배출
 - 이스라엘은 제한된 내수시장과 지정학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스타트업 네이션(Start-up Nation)' 모델을 정착
 - 싱가포르의 정부와 민간 자본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글로벌 인재 및 기업 유치를 통해 아시아 혁신 허브로 성장
- 이러한 변화는 한국경제에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함
 - 최근 AI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 경제 성장잠재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
 - 향후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과 이의 스케일업 역할이 중요

- 특히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수출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혁신기업 육성 중요성이 확대

2) 벤처생태계 성장과 구조적 한계

- 한국 벤처생태계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스케일업 단계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벤처기업 육성을 핵심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함
 - 벤처특별법 제정과 모태펀드 조성, 기술보증기금 확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벤처생태계 기반을 구축
 -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경제 확산 과정에서 벤처투자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일부 플랫폼 기업과 ICT 기업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과
- 그러나 한국 벤처생태계는 여전히 '창업에는 강하지만 스케일업에는 약한(start-up strong, scale-up weak)'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창업기업 수와 초기 투자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성장기업으로 발전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 창업 이후 성장단계에서 자금조달과 인력 확보, 글로벌 시장 진출 측면에서 병목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
 - 이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역시 중간 단계에서 성장 정체를 경험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 기존 벤처정책은 창업 활성화와 초기 투자 중심 접근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음
 - 창업기업 수 증가와 벤처투자 규모 확대는 중요한 성과이지만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성장기업이 얼마나 등장하는가에 좌우
 - 이러한 점에서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 사이를 연결하는 성장 허리층(middle growth layer)에 대한 관심이 필요

3) 정책의 진자현상과 정책 재설계 필요성

- 한국 벤처정책은 정부주도와 민간주도 사이를 반복하는 '정책의 진자현상(policy pendulum)'이라는 특징을 보여 왔음
- 외환위기 이후에는 정부주도형 벤처 육성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었음
 - 창업 지원과 정책금융, 벤처인증제도 등을 중심으로 정부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초기 벤처생태계 형성에 기여

- 벤처 버블 붕괴 이후 정부 주도 방식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며 민간 중심 접근 필요성이 제기
- 이후 벤처정책은 정부와 민간 사이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음
- 창조경제 정책과 혁신성장 정책 시기에는 다시 정부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직전 정부에서는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구축이 다시 강조되었다가 현 정부는 강력한 정부 주도 정책을 추진
- 이러한 변화는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한계가 존재
- 향후 벤처정책은 '정부냐 민간이냐'라는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창업 초기와 딥테크(deep tech) 산업에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며 성장 이후 단계에서는 민간 중심 자본시장과 글로벌 투자생태계 역할이 확대될 필요
- 즉 정부와 민간 역할을 단계별로 재설계하는 정책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

4) 벤처천억기업의 전략적 중요성 확대

- 최근 벤처천억기업은 혁신생태계 핵심 성장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
- 벤처천억기업은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 사이를 연결하는 성장 허리층으로 기능하고 있음
- 스타트업이 혁신 아이디어 출발점이라면 벤처천억기업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산업과 시장에서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
- 상당수 유니콘 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기업 단계를 거쳐 등장한다는 점에서 벤처천억기업은 '유니콘 이전 단계(pre-unicorn stage)' 핵심 후보군
- 벤처천억기업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벤처천억기업은 2005년 약 78개 수준에서 최근 약 985개 수준까지 증가
- 이는 한국 벤처생태계가 단순 창업 중심 구조에서 성장 중심 구조로 일부 전환하는 긍정적 신호
- 다만 글로벌 확장성과 스케일업 역량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함
- 미국과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주요 혁신국가와 비교할 때 글로벌 시장 진출과 후기 단계 투자시장(late-stage investment)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
- 이에 따라 벤처천억기업 층을 보다 두텁게 형성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성이 제기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본 연구는 벤처생태계 발전과정과 정책변화, 벤처천억기업 구조적 역할, 국제 연구기관의 벤처생태계 비교평가 분석을 통한 한국 생태계의 강점과 약점 검토 등을 중심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하였음
- 시간적 범위는 외환위기 이후 벤처정책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최근 AI 혁명과 기술패권 경쟁 시대까지를 중심으로 설정함
 - 외환위기 이후 벤처육성정책 도입과 벤처버블 형성기
 - 벤처버블 붕괴 이후 정책 조정기
 - 창조경제 및 혁신성장 정책 시기
 - 최근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강화 시기
- 공간적 범위는 한국을 중심으로 하되 주요 혁신국가와 비교분석을 병행함
 - 미국은 민간 중심 벤처투자와 개방형 혁신생태계 측면에서 비교대상으로 설정
 - 이스라엘은 제한된 내수시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술창업 국가로 성장한 사례라는 점에서 분석
 - 싱가포르의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
- 연구 범위는 단순 창업정책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단계와 유니콘 성장 메커니즘까지 포함함
 - 기존 벤처정책 연구가 창업 활성화와 초기 투자시장에 상대적으로 집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창업 이후 성장단계 병목현상과 성장기업 육성전략에 보다 초점
 - 특히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 사이를 연결하는 벤처천억기업 역할을 중점적으로 분석
- 연구 분석틀은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혁신기업까지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본 연구는 혁신생태계를 개별 기업 집합체가 아니라 연속적 성장구조로 이해하고자 함
 - 스타트업은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창업 출발점 역할 수행
 - 스케일업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시장 검증 단계 수행
 - 벤처천억기업은 생산성과 고용, 수출을 창출하는 성장 허리층 역할 수행

- 유니콘 기업(unicorn company)은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보유한 혁신기업으로 성장
- 최종적으로 글로벌 혁신기업(global innovation firm) 단계 진입 가능성 확대



【그림 1】 벤처생태계 성장사다리 및 연구 분석체계

- 이러한 접근은 단순 창업기업 수 증가보다 성장기업군 형성이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함
- 창업기업 증가는 혁신생태계 형성 측면에서 중요하나, 실질적인 생산성과 수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성장기업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
- 따라서 향후 정책 역시 창업 지원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성장 허리층 형성과 유니콘 창출 기반 강화로 전환될 필요
- 특히 경기도는 한국형 벤처생태계 전략 실험공간으로서 중요성이 높음
-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클러스터가 형성
- 용인·이천은 반도체 산업벨트 핵심 거점으로 성장 중
- 화성·평택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제조혁신 기반이 집적
- 광교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기반을 보유
- 이러한 산업기반은 경기도가 향후 벤처천역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핵심 혁신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통계분석, 국제 비교분석, 정책분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음
-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를 통해 벤처생태계와 혁신성장 이론을 검토함
 -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혁신이론
 - 벤처생태계 및 스타트업 성장모델
 - 신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과 혁신정책 논의
 -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관련 연구
- 특히 최근 OECD 산업정책 논의와 기술 패권 경쟁 관련 연구를 함께 검토함
 - 단순 시장 실패 보완 중심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논의 증가
 - 반도체와 AI,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벤처기업 역할 중요성이 확대되는 추세
 - 이에 따라 벤처정책과 산업정책 간 연계 필요성
- 통계 및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벤처생태계 구조와 성장기업 특성을 분석함
-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벤처기업 성장과 유니콘 창출 현황을 분석함

〈표 1〉 주요 활용 자료 및 분석 목적

구분	주요 자료	분석 목적
국내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천억기업 현황
국제자료	OECD, GEM, StartupBlink	국가별 생태계 비교
투자자료	CB Insights, PitchBook	유니콘 및 투자 동향
지역자료	경기도, GJF, 판교 자료	지역 혁신생태계 분석

- 중소벤처기업부 및 벤처기업협회 자료를 활용하여 벤처천억기업 수와 산업별 분포, 성장 특성을 분석
- StartupBlink와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NECI(National Entrepreneurship Context Index)를 활용하여 국가별 창업환경과 벤처생태계 경쟁력을 비교
- 국제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한국 벤처생태계 강점과 한계를 진단함
 - 미국은 민간 중심 벤처투자자 자본시장 중심 성장모델을 구축

- 이스라엘은 기술창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 강점
- 싱가포르의 정부와 민간 협력 기반 글로벌 혁신허브 전략을 추진
-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국 벤처생태계가 참고할 수 있는 정책 함의를 도출
- 국내외 성장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성장과정과 병목요인을 분석함
- 반도체, AI,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등 딥테크(deep tech) 산업 중심 사례 검토
- 성장금융(scale-up finance)과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 분석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및 대기업-벤처 협력 생태계 분석
- 이를 통해 단순 창업정책이 아닌 성장기업 중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유니콘 기업은 단기 재정지원만으로 형성되기 어려우며,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기업군이 충분히 축적될 때 보다 안정적으로 등장할 가능성
- 벤처천역기업을 확대하고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3)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기존 창업 중심 벤처정책 논의를 성장기업 중심 관점으로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지금까지 벤처정책은 창업기업 수 확대와 초기 투자시장 활성화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음
- 그러나 실질적인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성장기업이 얼마나 등장하는가에 의해 좌우
- 이러한 점에서 벤처천역기업은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 사이를 연결하는 성장 허리층으로서 중요성
- 향후 정책 중심축 역시 단순 창업 확대에서 성장기업 육성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음
-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을 만들 것인가"보다 "얼마나 많은 벤처천역기업을 육성할 것인가"와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업을 유니콘과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인가"가 보다 중요
-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경제가 단순한 창업국가(Start-up Nation)를 넘어 성장국가(Scale-up Nation), 나아가 혁신성장국가(Innovation Growth Nation)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연구의 차별성과 정책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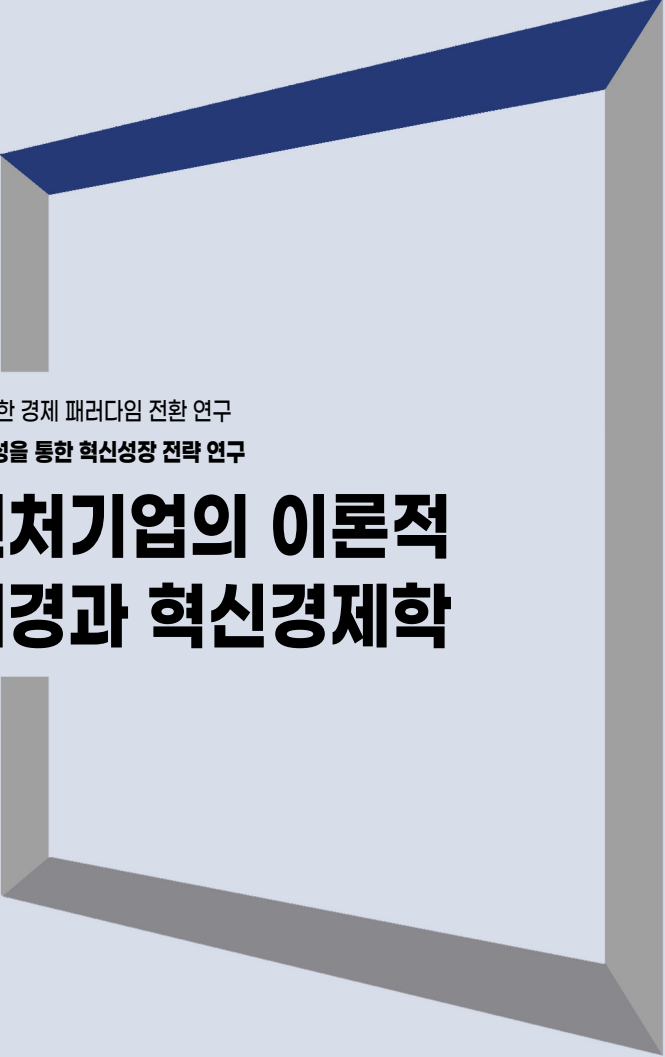
1) 기존 연구와 차별성

- 기존 벤처 관련 연구는 주로 창업 활성화와 벤처투자 확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두는 경우가 많았음
- 특히 창업지원정책과 창업환경 개선, 초기 투자시장 활성화, 기업가 정신 확산과 같은 창업 초기 단계 연구는 비교적 풍부하게 축적
- 최근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유니콘 기업 증가 추이가 주목받으면서 혁신기업 성장전략에 대한 논의 역시 확산
-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성장기업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등장하며, 이들이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수출, 기술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
- 무엇보다 기존 연구는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을 각각 독립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음.
- 즉 스타트업은 혁신의 출발점으로, 유니콘 기업은 혁신생태계 성공을 상징하는 결과물로 인식되어 왔으나, 유니콘 기업은 창업 직후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과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장 단계를 거치는 발전
-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 사이에는 장기간에 걸친 성장 과정이 존재하며 이 과정에서 벤처천역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군
- 본 연구는 벤처천역기업을 혁신생태계의 ‘성장허리층’으로 파악하고 분석의 중심에 둠
- 벤처천역기업은 시장과 산업에서 스타트업이 생성한 아이디어와 혁신의 단초를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
-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높은 연구개발 투자 비중과 생산성, 수출역량을 보유하며, 청년층에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good job)를 창출하며 유니콘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후보군

2) 정책적 의의

- 벤처정책을 국가 첨단산업 전략으로 ‘대체 불가능’한 기업과 산업 영역을 확보하는 산업 정책의 핵심으로 격상하고 분석함

- 과거 벤처 정책이 상대적으로 독립된 창업지원정책에 가까웠다면 최근 인공 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모빌리티 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상하며 대기업과 혁신 벤처기업 위상이 더욱 부각
- 이러한 딥테크(deep tech) 산업에서는 스타트업과 성장벤처, 벤처천역기업이 대기업 공급망과 연결되며 산업혁신을 주도하기 때문에 산업정책과 벤처정책 간 유기적 결합은 매우 중요
- 대기업 중심으로 시행된 과거 산업화시대 산업정책을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방점을 둔 정책으로의 전환이 꾸준히 시도된 바 있으나 산업구조와 조직문제가 불변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과 생산성 둔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완화되지 못하고 있음
-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대기업 중심 제조업이었다면 기술패권 경쟁과 인공지능 혁명 시대와 그 이후 새로운 성장엔진은 벤처천역기업과 유니콘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앞서 연구의 기대효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정책의 중점을 많은 벤처천역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둔다는 것에 정책적 의의가 있음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전략 연구

II. 벤처기업의 이론적 배경과 혁신경제학

II. 벤처기업의 이론적 배경과 혁신경제학

1. 벤처기업 개념과 특성

- 벤처기업은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독특한 경제적 특성을 가짐
- 전통적 의미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벤처기업은 규모면과 함께 혁신성(innovation), 기술집약성(technology intensity), 성장 잠재력(growth potential)을 중심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차이

1) 벤처기업 개념

- 벤처기업이라는 개념은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게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의 경쟁질서를 변화시키는 기업을 의미함
- 특히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 중소기업과는 구별되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벤처기업은 자본시장과 정책 측면에서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한 측면이 존재
- 국제적으로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VC: Venture Capital)의 투자를 받은 신생 혁신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임
-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혁신적이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생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의미하는데 OECD는 벤처캐피탈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과 실적이 없는 신생기업들(young companies)에 적합한 지분투자 형태의 자금조달 방식으로 설명
- 한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은 벤처캐피탈을 혁신적이고 성장지향적(growth-oriented)인 중소기업이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벤처캐피탈을 고성장기업(high-growth companies)에 집중하고 지분투자 방식을 통해 자본을 제공하며, 더 높은 수익 가능성을 위해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전통적인 금융 방식보다 긴 투자기간을 갖는 방식이라고 설명
- 글로벌 투자기관인 J.P. Morgan은 벤처캐피탈을 높은 실패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높은 가치 창출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방식으로 설명

- 종합하여 이러한 벤처캐피털의 속성을 감안하면 벤처기업의 특성은 혁신성, 성장잠재력, 신산업,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법)’에 따라 일정한 기술성과 혁신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하며 정책적으로 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등 다양한 유형을 벤처기업으로 선별하여 인증하는 벤처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장 기반 벤처기업 선별을 병행함
-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와 회복탄력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서 ‘벤처확인제도’를 시작
- 벤처법은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2007년, 2017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2024년 1월 상시법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벤처확인제도는 2001년, 2002년, 2005년, 그리고 2021년에 걸쳐 개편
- 벤처투자를 시장의 선별 기능에만 맡겨두면 신생·소규모·신산업 종사 등의 속성으로 인해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적절한 평가와 투자를 받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벤처캐피털 투자 외에도 정책적 인증방식을 병행
- 이는 시장에 신호(signaling)를 제공하고 시장이 포착하지 못하는 혁신기업을 보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

2) 특성

- 벤처기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높은 불확실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임
-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환경 속에서 기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시장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기존 시장질서를 재편하는 속성을 보유
- 이러한 특성은 벤처기업이 혁신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이며 벤처기업은 기존 산업구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기술혁신을 통해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다수
- 예를 들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정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였고, 바이오 벤처는 기존 의료체계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영역에서 새로운 치료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기업은 산업 전반의 생산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변화시키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강력하게 부상

- 벤처기업은 단순히 규모가 작은 신생기업이라기보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혁신의 매개체라는 점에서 주목받으며 혁신경제학은 벤처기업을 기술변화와 산업재편을 촉진하는 핵심 경제주체로 파악
 - 신산업이 탄생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대기업보다 벤처기업이 더 강한 경쟁우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기업이 기존 사업구조와 조직 관성으로 인하여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벤처기업은 작은 조직 규모와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민첩하게 실행하고 상용화할 수 있기 때문
- 그러나 벤처기업의 높은 성장잠재력은 동시에 높은 실패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양면성이 존재함
 - 혁신 자체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당수 벤처기업은 시장검증 단계에서 실패하거나 자금 부족, 기술 상용화, 인력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에 봉착
 - 창업 초기에는 기술력만으로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고, 생산능력 확보, 마케팅, 조직관리, 글로벌 시장 대응 등 복합적 역량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일정 규모 수준으로 성장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벤처기업 성장 과정에서는 일반 금융시장과 다른 특수한 자금조달 구조가 필요함
 - 일반 금융기관은 담보와 안정적 수익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공급하지만 벤처기업은 담보 부족, 수익구조 불확실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 금융방식만으로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
 - 따라서 벤처캐피털(VC), 엔젤투자, 정책금융, 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과 같은 위험감수형(risk taking) 금융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창업, 스케일업, 벤처천역기업, 유니콘(unicorn) 등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거침
 - 모든 벤처기업이 이러한 단계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수 기업이 초기단계에서 시장진입에 실패하며, 일정 수준의 매출을 확보하더라도 성장 정체에 직면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극히 일부 기업이 기술혁신과 시장 확대를 통해 급격한 성장에 성공하며 산업생태계를 변화시키는 핵심 주체로 발전

3) 고성장 벤처천역기업의 중요성

- 최근 OECD를 비롯한 국제기관과 혁신경제학 연구에서 경제성장 경로에서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자체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여 매출이 3년 연속 20% 이상 증가는 고성장기업(high-growth firms)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부각됨

- 이는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모든 기업의 평균적 성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혁신적 고성장기업에 의하여 주도되는 경우가 많다는 실증적 결과에 기초
- 이러한 관점에서도 벤처천역기업은 단순한 매출규모 일정 기준 이상의 의미가 있음.
- 벤처천역기업은 스타트업 단계의 기술혁신이 실제 시장에서 검증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성장기업군이며 벤처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허리층이라는 관점에서 중요
- 또한 스타트업보다 조직적 안정성과 시장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기업보다 높은 민감성과 혁신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생태계 내에서 독특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

2. 벤처캐피털과 혁신금융

1) 벤처와 혁신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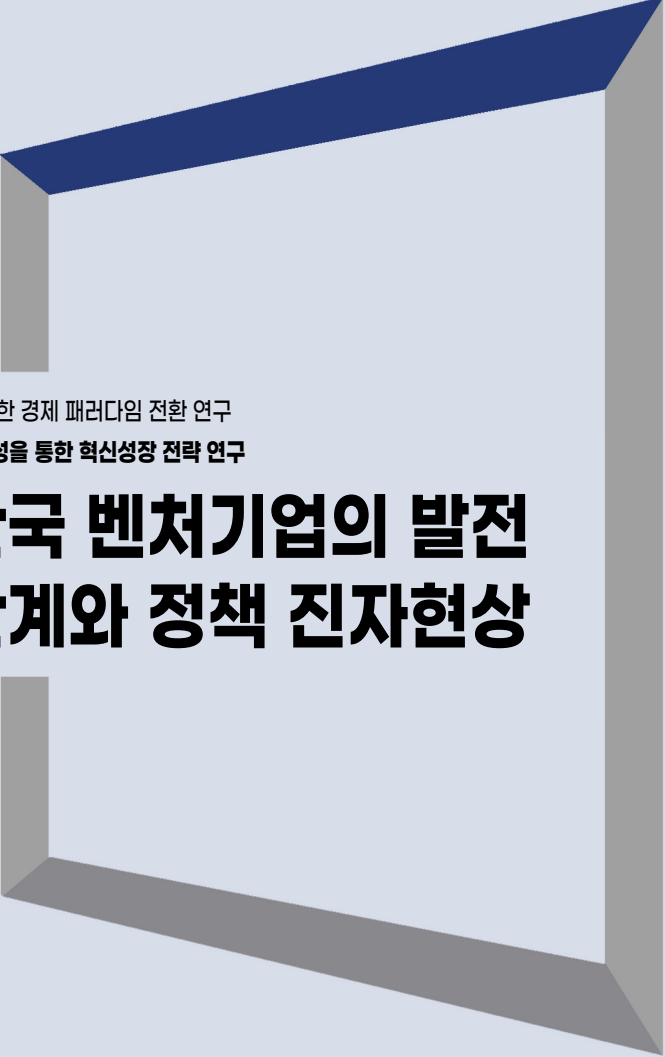
- 혁신금융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체계를 의미함
 - 기술혁신과 시장개척을 목표로 하는 벤처기업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지므로 단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전통 금융기관보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투자자본이 결정적으로 중요
- 벤처캐피털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에 자본을 투자하고 기업가치가 상승한 이후 기업공개(IPO) 또는 인수합병(M&A)을 통해 투자이익을 회수(Exit)하는 금융 방식을 의미
 - 벤처캐피털은 벤처생태계의 핵심인프라로 기능하며 단순한 자금공급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이후 경영 자문, 네트워크 연결, 후속 투자유치, 글로벌 시장진출, 인재 확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과정 전반에 큰 영향
- 벤처캐피털은 이렇듯 벤처생태계의 발전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
 - 혁신산업에서는 기술의 성공 가능성뿐 아니라 시장 형성 속도와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투자자의 존재가 기업 성장에 결정적으로 영향
- 실리콘밸리와 같은 벤처생태계에서 벤처캐피털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들이 기술과 자본, 인재 시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이기 때문
 - 많은 글로벌 기술기업들은 창업 초기 벤처캐피털 투자를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이후 기업공개나 인수합병을 통해 자금을 회수한 투자자들이 다시 새로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
- 반면 한국의 벤처금융은 일정 수준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노정
 - 외환위기 이후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벤처투자생태계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민간 투자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벤처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초기 벤처생태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실제로 벤처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역시 확대되는 추세
 -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할 때 정부 주도적 벤처금융 구조는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는데 혁신기업 투자는 본질적으로 높은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 방식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움

- 또한 정책금융 중심 구조에서는 투자 의사 결정이 시장성과 성장잠재력보다는 정책목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성숙한 벤처생태계를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선별자(selector) 역할을 하기보다 민간 투자생태계가 위험을 평가하고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
- 최근 들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은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기업형 벤처캐피털은 대기업이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와 달리 이들은 기술확보, 신시장 개척, 오픈 이노베이션, 공급망 혁신 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과 협력
 -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에서는 첨단 소재나 장비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공급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관련 스타트업 투자가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이는 기존 대기업 중심 혁신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큰 기여
- 최근 OECD 연구에서도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CVC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단순히 특허 수가 증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허 질 또한 크게 향상되는 경향이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됨(OECD, 2025)
 - 이는 혁신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지는 최근 산업경쟁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데 많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산업 전체에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미칠 수 있는 고품질 혁신에 CVC가 촉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
- 그렇지만 한국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생태계는 아직 충분하게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삼성, 현대자동차, SK, LG와 같은 세계적 대기업이 있지만 스타트업과 대기업간 전략적 투자 및 인수합병 연결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
 - 특히 벤처기업이 일정 수준 성장한 이후 대기업 공급망과 연결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은 한국 벤처생태계의 중요한 약점으로 지적

2) 벤처캐피털과 벤처천역기업

- 이러한 상황에서 벤처천역기업은 혁신금융과 산업생태계를 연결하는 중간층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큼
- 스타트업이 초기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고 대기업은 급진적 기술개발에 한계를 가진다면 벤처천역기업은 이미 시장검증과 상용화를 경험한 기업군으로 기술의 산업화와 공급망 혁신을 연결하는데 핵심적으로 작동 가능하며 오픈 이노베이션 구조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

- 고성장기업의 대표적 사례인 벤처천역기업은 혁신의 산업화와 공급망 혁신을 주도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데 특히 혁신의 확산 측면에서 혁신의 씨앗을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혁신 증폭기(amplifier of innovation) 역할
- 벤처천역기업은 성장잠재력을 상승시키는 핵심 기업으로 일반 중소기업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높음
- 수출 비중과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우수하며 고숙련 전문 인력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어 AI 개발자, 반도체 엔지니어, 바이오 연구자 등과 같은 고급 인력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또한 벤처천역기업은 유니콘 기업의 호보군(pre-unicorn pool)로서 유니콘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성장층
- 벤처천역기업은 지역경제 관점에서도 중요한 혁신생태계를 움직이는 허브기업(hub firm)
- 혁신기업은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성장에 성공하면 단순히 개별 기업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경향
- 즉 협력기업과 공급망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지역 내부로의 고급 인력 유입이 증가하며, 투자자와 연구기관이 집적되는 혁신클러스터 효과가 형성되는데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우 성공한 벤처기업이 다시 창업자, 투자자, 멘토 역할을 하면서 생태계가 재생성되는 구조가 형성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전략 연구

Ⅲ. 한국 벤처기업의 발전 단계와 정책 진자현상

Ⅲ. 한국 벤처기업의 발전단계와 정책 진자현상

- 최근 벤처생태계의 진전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과거 중요한 벤처생태계의 역사적 전개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변화과정을 검토함

1. 1차 벤처붐(1997~2001년), 그리고 조정기와 재도약기(2002~2012년)

- 한국 벤처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시점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 1998년 이후라고 할 수 있음
 -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산업구조 전환과 벤처생태계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
 - 대기업 중심 성장모델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벤처산업을 미래 성장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시작
- 특히 이 시기 인터넷 산업의 급성장은 제 1차 벤처붐을 촉진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는데 현재 AI 관련 산업의 급성장이 새로운 벤처붐을 조성하는 것과 유사한 산업 환경이 조성
 -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확대와 정보통신 인프라 발전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게임산업 등을 중심으로 벤처기업들이 큰 폭으로 증가
 - 이 시기 벤처기업은 단순한 제조업 연계 기술 산업을 넘어 디지털 경제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 주체로 확대되기 시작
- 당시 정부는 벤처기업을 단순한 초기 중소기업이 아니라 외환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로 인식함
 - 이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코스닥(KOSDAQ) 시장 활성화, 벤처캐피탈 투자 확대, 창업보육센터 설립, 기술 보증 제도 강화 등이 동시에 추진
 - 이러한 정책변화는 이전까지 제한적 수준에 그쳤던 창업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계기
- 또한 코스닥 시장의 급성장은 벤처기업 성장에 가한 유인을 제공함
 - 기존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신생기업이 자본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성공적인 기업공개(IPO)는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하여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 확대를 촉진하며 벤처생태계 전반에 낙관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

- 1차 벤처붐은 긍정적 성과와 함께 구조적 문제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음
 - 인터넷 버블과 과도한 기대 속에서 실질적 수익모델이 부족한 기업까지 무분별하게 투자 받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일부 기업은 기술력과 사업성보다 단기적 주가 상승에 기업역량을 집중하는 경향을 노정
 - 2000년 이후 미국 닷컴버블 붕괴는 한국 벤처시장에도 큰 충격을 가져왔으며, 많은 벤처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초래
- 1차 벤처붐은 한국 벤처생태계 형성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음.
 - 벤처캐피탈 제도, 코스닥 시장, 기술보증 체계, 창업 보육 센터 등 핵심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기업가정신과 기술창업이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
 - 또한 이후 성공한 IT기업과 벤처기업 상당수가 이 시기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1차 벤처붐은 한국형 벤처생태계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평가
- 닷컴버블 붕괴 이후 2002년 무렵부터 한국 벤처생태계는 일정 기간 조정기를 경험함
 -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기업 가치 급락과 코스닥 시장 침체는 벤처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왔으며, 과도한 기대 속에 성장한 벤처기업은 다수가 수익성 악화와 자금조달 위기에 직면
 - 외형적 성장에 의존하던 기업 상당수가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벤처산업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 역시 상당히 악화되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투기적 투자와 만연한 도덕적 해이는 벤처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도 부정적 영향이 잔존
- 그러나 이러한 조정기는 역설적으로 한국 벤처생태계가 성숙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됨
 - 1차 벤처붐 시기에는 창업 자체와 기업 수 확대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조정기 이후에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생태계가 재편되기 시작
 - 즉 단순한 양적 성장에서 생존과 질적 성장 중심 구조로 전환 형성
-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제조업 연계형 벤처기업의 성장이라 할 수 있음
 - 한국경제가 IT와 전자산업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부품, 산업용 소프트웨어, 자동화 시스템, 정밀기계 등 B2B 기반 기술기업들이 점차 성장하기 시작
 - 이는 한국 벤처생태계가 미국 실리콘밸리식 플랫폼 중심 구조와는 달리 공급망과 깊이 결합한 독특한 발전 경로를 가지게 되는 중요한 배경을 조성

-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 공급망에 기술 기반 벤처기업이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벤처기업 성장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과거 벤처기업이 독립적 신산업 개척에 집중하였다면 조정기 이후에는 대기업과 협력하며 특정 기술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형태가 확대
- 이는 한국 벤처기업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였으나, 동시에 대기업 의존적 구조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
- 정부 정책 역시 변화하여 벤처기업 수 확대보다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 보증 확대,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음
-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확대는 담보 부족 문제를 겪는 기술 창업기업 성장에 중요한 기반
- 그러나 이 시기에도 한국 벤처생태계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였음
- 민간 벤처생태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의존도가 여전히 높았고 인수합병 시장도 활성화되지 못한 채 벤처투자의 주요 회수 경로는 기업공개에 더 집중
- 이는 벤처생태계의 선순환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즉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성공한 창업자가 다시 투자자와 멘토, 재창업자로 생태계 안에 재진입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던 반면, 한국에서는 창업 성공 이후 자본과 경험이 다시 생태계로 환류되는 구조가 불충분
- 또한 실패에 대한 사회적 부담 역시 커서 이는 기업가정신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생태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부 벤처기업은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함
- 게임산업, 온라인 서비스, 모바일 콘텐츠, 반도체 장비, 정밀 부품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등장하고 이는 이후 벤처천억기업 성장의 토대
- 즉 이 시기는 벤처생태계가 창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는 기업군이 등장하는 성장 단계로 이동하기 시작한 전환기라고 평가 가능
-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초기 벤처붐 시기 벤처기업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이미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조정기 이후에는 기술력과 시장성을 바탕으로 장기 성장하는 혁신기업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다는 점임
- 이는 2차 벤처붐과 스케일업 생태계 형성의 중요한 사회적 기반

2. 2차 벤처붐과 스케일업 전환기(2013~2025년)

- 2010년대 이후 한국 벤처생태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함
 - 스마트폰 보급 확보와 모바일 플랫폼 성장, AI, 빅데이터, 바이오, 핀테크,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벤처기업이 다시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주목받기 시작
 - 특히 디지털 전환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벤처기업의 역할은 과거보다 더욱 중요
- 가장 큰 변화는 벤처생태계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벤처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스타트업 창업 역시 활성화됨
 - 정부는 제2 벤처붐 정책을 통해 창업 인프라와 초기 투자환경을 강화하였으며,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 시장 역시 점차 확대
 -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장은 한국 벤처생태계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판교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스타트업, 벤처기업, 투자기관, 대기업 연구개발 센터, 전문기관, 대학이 집적된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한 한국형 실리콘밸리라는 평가가 가능
 - 이 시기부터 기업간 협력과 투자, 인재 이동, 오픈 이노베이션이 결합된 생태계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
- 또 다른 변화는 벤처기업 성장단계가 다층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으로 과거 벤처기업은 창업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스케일업의 중요성이 강조됨
 - 창업 이후 일정 수준 매출과 고객 기반을 확보한 기업들이 생산 확대, 해외시장 진출, 대규모 투자유치, 인수합병,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새로운 단계로 진입
- 이 과정에서 벤처천억기업은 한국 벤처생태계의 새로운 중심층으로 부상함
 -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하며 산업생태계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성장 기업군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약 78개 수준에서 2024년 약 985개 수준으로 증가
 - 이는 단순한 기업 수의 확대를 넘어 한국 벤처생태계가 생존 중심 단계에서 성장 중심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변화
- 벤처천억기업은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 과거 주로 인터넷서비스나 일부 IT 분야에 집중되었던 산업 분야가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반도체 장비, 로봇, 디지털 콘텐츠, 클라우드 서비스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으로 진행

- 이는 한국 벤처생태계가 특정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첨단산업 전반의 혁신 플랫폼화하고 있음을 의미
- 이 시기에는 또한 유니콘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확대됨. 유니콘기업은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기업을 의미하지만, 국가 혁신생태계 경쟁력을 상징하는 대표적 지표로서 국가별 혁신생태계 환경을 평가하는 데 활용
- 한국에서도 플랫폼, 전자상거래, 핀테크, 콘텐츠 산업 등을 중심으로 유니콘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벤처생태계 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
-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한계는 교정되지 못한 채 지속됨.
- 여전히 창업에는 강하지만 스케일업에는 약한 구조라는 국제기관의 평가가 반복적으로 제기
- 초기 창업 지원과 소규모 투자환경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성장금융, 글로벌 네트워크, 해외 시장진출, 전문경영 인력 확보, 대기업 공급망 연계 등에서는 구조적 병목현상을 노정
- 또한 글로벌화 측면에서의 한계도 지적되는데, 싱가포르나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전략을 적극 활용하는데 비해 한국은 내수시장에서 일정한 정도 성공한 후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후발 글로벌화 경향을 보임
- 민간 벤처캐피털과 기업형 벤처캐피털 생태계 역시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벤처투자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민간 조달 위험투자 구조는 자리 잡지 못한 채 정부 정책 금융의존도가 높고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사다리 형성이 부진
- 2차 벤처붐 시기는 한국 벤처생태계가 창업 중심 구조에서 성장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음
- 스타트업이 단순한 실험적 기업이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경제주체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벤처천역기업이 혁신생태계의 핵심 허리층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구별
- 한국 벤처생태계는 1980년대 태동기, 외환위기 이후 1차 벤처붐, 2000년대 조정기와 재도약기를 거쳐 최근 스케일업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로봇 등 혁신기술의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음.
- 그러나 다방면적인 병목, 글로벌 경쟁력 부족, 민간 투자조달 생태계 미성숙과 같은 고질적인 구조적 제약이 잔존하여 벤처생태계의 발전적 지속가능성을 위협

3. 벤처정책의 진자현상과 정책 일관성 문제

- 한국 벤처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정부의 벤처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 사이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정책의 진자현상(policy pendulum)’을 보여왔다는 점임
- 즉 특정 시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금 공급과 제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며 생태계를 견인하다가, 다른 시기에는 시장 중심과 민간 주도 원칙을 강조하며 정부 역할 축소 시켰으며 이러한 변화는 반복적으로 나타남
- 그리고 이는 단순한 정책 보완 수준에 그치지 않고 벤처정책 철학 자체가 정권 교체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상당한 폭으로 흔들렸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 가능

1) 벤처정책의 진자현상

- 외환위기 직후 벤처정책은 전형적인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의 성격이 강했음
- 대기업의 이른바 문어발식 다각화 및 규모 확대는 기업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증가시키며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
- 이에 벤처기업은 경제회복과 산업구조 전환의 핵심 경제주체로 부상하였으며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벤처확인제도를 통해 정책적으로 벤처기업을 선별·육성하는 독특한 제도 구조가 형성
- 당시 벤처정책은 시장의 선별 기능만으로는 정보 비대칭성과 자금조달 한계 때문에 혁신적 벤처기업이 적절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위에서 설계되었고 정부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는 방식
- 초기 1차 벤처붐 시기 정부는 시장에 자금조달과 세제지원 등 다양한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 벤처산업은 단기간에 급속하게 성장
- 그러나 동시에 지나친 정책금융 의존과 단기적 투자 과열은 2000년대 초 벤처버블 붕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짐
- 2000년대 중반부터는 과도한 정부 개입에 대한 반성 속에서 시장선별 기능 강화와 민간 중심 원칙이 강조되기 시작함
- 벤처기업에 대한 과잉 지원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하고 실질적인 혁신 벤처보다 정책 수혜형 기업을 양산하였다는 문제의식이 확산
- 이 시기에는 기술 보증과 대출 중심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민간 벤처캐피탈 활성화와 시장 경쟁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즉 민간주도로 정책 중심이 이동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하면서 다시 벤처정책은 정부 주도로 방향을 전환함
- 창조경제와 혁신성장 기조 아래 정부는 모태펀드 확대와 창업지원 프로그램,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인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등을 중심으로 창업생태계 조성에 개입
- 창업기업 수 확대와 유니콘 육성이 주요 정책목표가 되었으며 정책금융과 공공 액셀러레이팅이 크게 확대
- 2021년 벤처확인제도 개편은 다시 민간 주도의 벤처생태계 전환으로 정책 흐름을 바꾸려는 정부의 의도에서 시행됨
- 기존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 확인 체계를 개편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도입하고, 대출·보증 유형을 폐지하는 대신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평가하는 혁신성장 유형을 신설
- 이는 벤처 본연의 속성에 더 부합하도록 시장과 민간 전문가의 판단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
- 최근에는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산업정책 기조하에서 벤처정책은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성장기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 주도 방향으로 전개됨
- 특히 정부는 퇴직연금과 연기금투자펀 등을 벤처투자에 활용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창업과 투자를 수도권 수준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모두의 성장'과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2) 2013년 이후 정권별 정책 기조와 벤처정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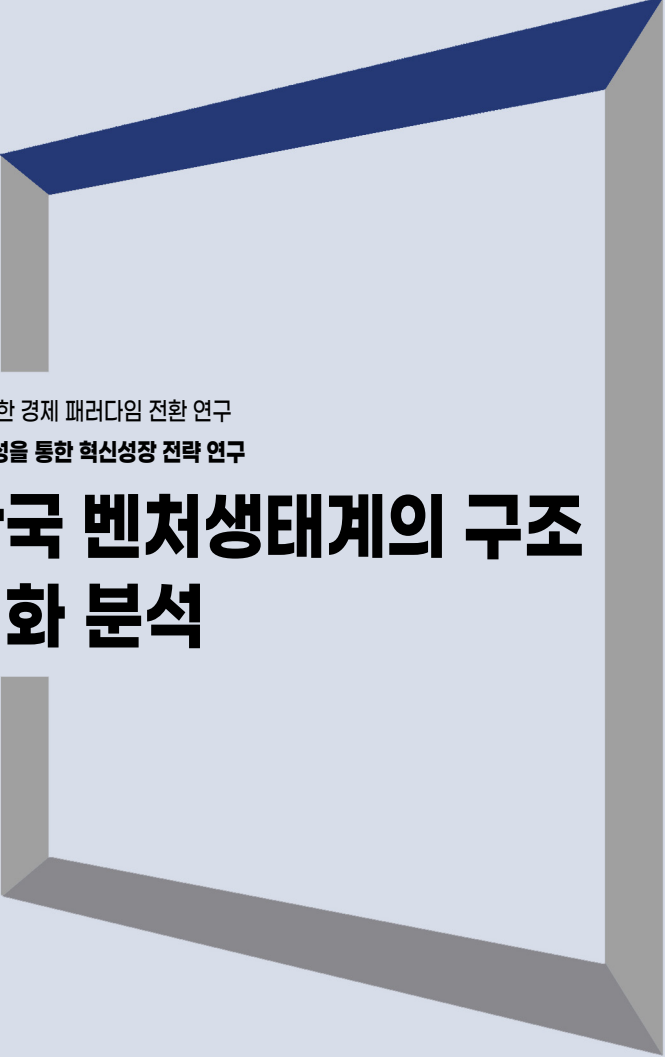
- 박근혜 정부(2013~2017) : '창조경제'를 통한 생태계 기반 마련
- 정책 철학 및 비전: '창조경제'를 국정 핵심 기조로 설정하여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창업 활성화 및 벤처생태계의 체계적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전통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 창출 목표
- 문재인 정부(2017~2022) : '혁신성장'을 통한 생태계 스케일업과 질적 심화
- 정책 철학 및 비전: '혁신성장'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여 벤처기업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며 정책초점을 '창업'에서 '성장'으로 전환

- 윤석열 정부(2022~2025) : 글로벌 디지털 허브와 민간 주도 성장
 - 정책 철학 및 비전: '글로벌 디지털 허브' 비전 아래 정부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 자율성과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혁신을 유도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전환
- 이재명 정부(2025~) :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동시 추구
 - 정책 철학 및 비전: '기술선도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가능 성장, 모두의 성장'이라는 정책과제 아래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성장기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대체불가능한 국가로의 도약을 추진

〈표 2〉 과거 정부 벤처 정책 기조 비교

정책 기조 · 영역	박근혜 정부 (2014~2017)	문재인 정부 (2017~2022)	윤석열 정부 (2022~2025)
전반적 비전	창조경제	혁신성장	글로벌 디지털 허브, 민간 주도
정책 철학	정부 주도 인프라 구축, 초기 창업 독려	정부 지원 통한 스케일업, 생태계 성숙	민간 주도 성장, 시장 친화적, 정부 개입 축소
핵심 이니셔티브	창조경제혁신센터, R&D 사업화 연계	규제 샌드박스, CVC 활성화, 유니콘 육성	딥테크 투자 확대, 글로벌 진출 · 외자 유치
자금 조달 방식	초기 벤처 투자 기반 조성	정부 주도 펀드 확대, 민간 투자 유도(CVC)	민간 자본 동원 강조, 딥테크 등 전략 분야에 정부 투자
규제 접근 방식	초기 규제 개선 노력	규제 샌드박스 도입 · 확대, 규제 혁신	규제 합리화, 디지털 전환을 위한 규제 완화 지속
글로벌 초점	제한적, 내수 중심	점진적 글로벌 진출 지원	적극적인 글로벌 확장, 해외 VC 유치, 글로벌 인재 육성
주요 성과	벤처생태계 기초 마련, 투자액 초기 성장	벤처 투자액 폭발적 증가, 유니콘 기업 수 급증	2022년 역대 최고 투자액, 딥테크 · 글로벌 전략 수립
주요 도전 과제	생태계 초기 단계, 죽음의 계곡	후기 단계 투자 부족,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글로벌 경기 둔화 속 투자 위축, 민간 주도 전환의 안착

자료: 박문수의 (2025)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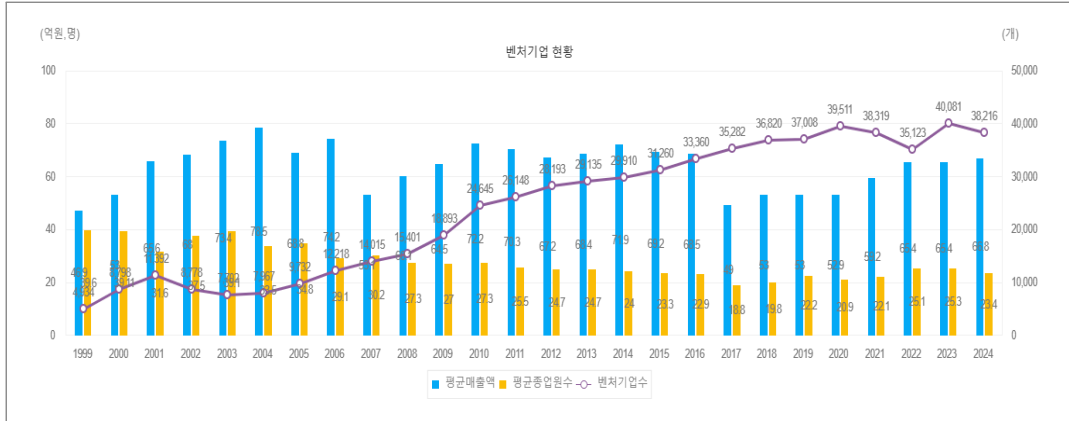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전략 연구

Ⅳ. 한국 벤처생태계의 구조 변화 분석

Ⅳ. 한국 벤처생태계의 구조 변화 분석

1. 벤처기업의 양적·질적 성장

- 한국 벤처는 양적 성장을 이루며 질적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여 가고 있음
 - 벤처기업수(벤처확인기업수)는 1999년 4,934개에서 2023년 36,959개로 증가하여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24년 35,857개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8.3% 증가
 - 벤처기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벤처 확인 및 기준 등 제도변경이 있었던 2002년과 2022년에는 크게 감소
-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1999년 46억 9,000만 원에서 2024년 66억 8,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 78억 5,000만 원이 최고 기록
- 한 기업당 평균 종업원수는 1999년 39.6명에서 2024년 23.4명으로 감소
- 벤처기업 유형은 과거 금융지원 중심의 대출 보증 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2015~2020년 86~94% 비중)하였으나 기술성·성장성 중심의 혁신성장 유형이 가장 큰 비중(2023년 64.7%)을 차지
 - 2021년 대출 보증유형을 폐지하고 혁신성장 유형을 신설 개편
 - 특히 2021년 제도 개편 이후 혁신성장유형의 벤처가 21.5% 64.7%로 대폭 증가
- 최근 벤처기업수가 감소하면서 혁신성장 유형 벤처의 비중은 상승한다는 점은 과거 벤처 생태계와는 달리 창업 이후 스케일업 단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상을 반영함
 - 단순한 기업수 증가가 아니라 혁신기업이 생존과 성장, 글로벌 진출단계로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 성숙 과정이 진행
- 신규 창업 수가 증가하더라도 상당수 기업은 초기 시장검증(product-market fit)단계에서 생존하지 못하였으며 일정 수준 매출을 확보한 이후에도 성장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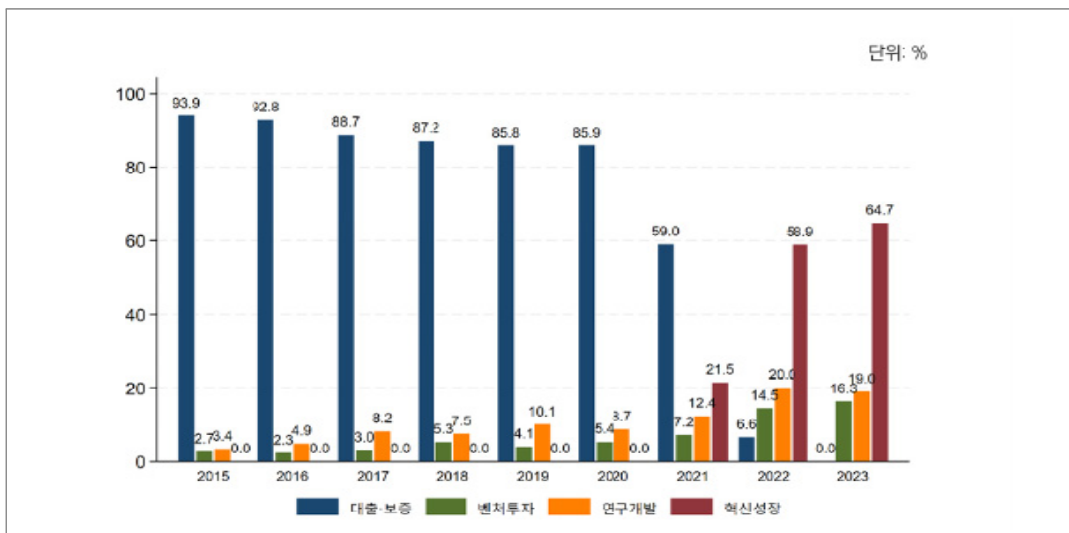
자료 : e 나라지표

【그림 2】 벤처기업수, 매출액, 종업원수 추이

〈표 3〉 벤처확인제도의 변천: 벤처확인유형의 변화

	1998년	2001년	2002년	2005년	2021년
확인유형	벤처캐피탈투자	벤처캐피탈투자	벤처투자	벤처투자	벤처투자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	연구개발	연구개발
	특허신기술	신기술 개발	신기술 평가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대출	혁신성장
		기술 평가			

자료: 김여림(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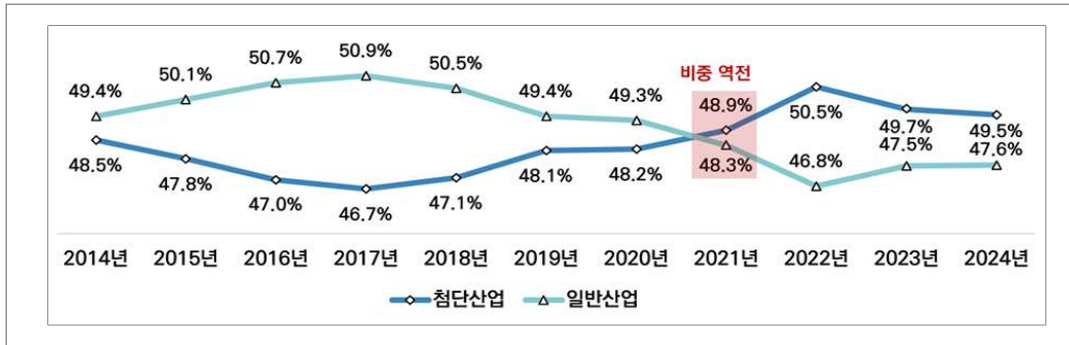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그림 3】 연도별·유형별 벤처기업 비중 추이

- 과거 초기 벤처 정책이 창업 자체를 중요한 정책 성과로 두고 창업기업 수, 신규 법인 설립 건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실적 등을 벤처생태계의 핵심 지표로 둔 바 있으나 한국의 혁신생태계 경쟁력은 제자리
- 최근 들어 한국 벤처생태계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성장단계별 기업 구조가 점차 다층화되고 있다는 점임
- 과거에는 창업기업과 성공기업 사이의 격차가 매우 컸다면 최근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을 이룬 중간 성장층(middle growth layer)이 형성되어 자리잡기 시작
- 이들 기업은 단순한 스타트업을 넘어 상당한 수준의 매출과 조직 규모를 확보하고 있으며,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동시에 내재

2. 벤처기업 산업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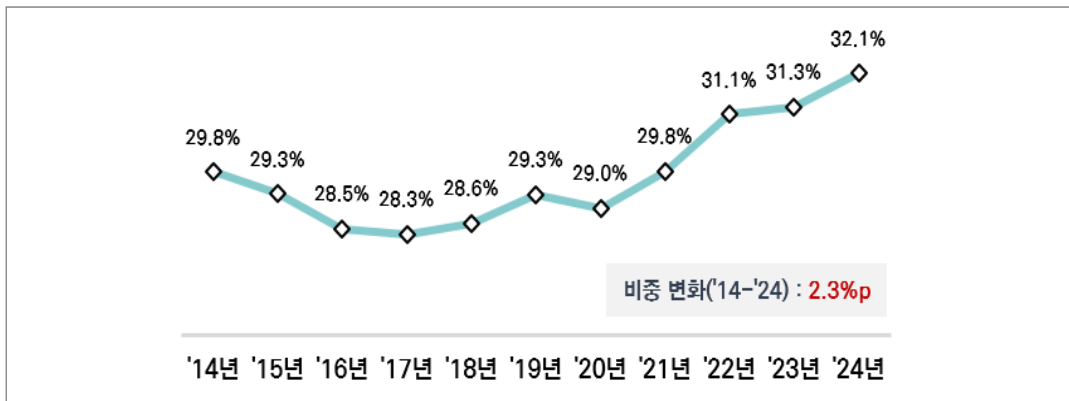
- 벤처기업이 가장 많은 업종은 ‘소프트웨어개발’ 분야로 2014년 3,132개에서 2024년 4,921개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벤처기업중 13.7%를 차지함
 - 정보통신 3,321개, 기타서비스 3,265개 순으로 기업 수가 분포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서비스 분야는 2014년 이후 연평균 19.1%의 빠른 증가
 - 2014~2024년간 업종별로 나타나 벤처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이 뚜렷함
 - 제조업 벤처기업수는 연평균 1.6% 증가에 그쳤고 서비스업은 7.4% 증가하였고, 비중도 제조업은 동 기간중 13.1%p나 하락하고 서비스업은 12.3%p 증가
 - 과거 제조업 중심의 벤처기업 산업분포가 IT, 소프트웨어 등 기술 기반 서비스업 위주로 이전
 - 또한 동 기간 중 첨단산업 벤처기업수는 4.0% 증가하였는데 일반 산업은 3.4% 증가함.
 - 첨단산업의 증가세가 일반 산업을 앞서며 2021년 이후는 첨단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산업의 비중을 초과해 첨단산업 중심 산업구조를 형성
- * 일반 산업 벤처기업 : '14년 12,177개 -> '24년 17,061개 (연평균 3.4%)
- * 첨단산업 벤처기업 : '14년 11,953개 -> '24년 17,745개 (연평균 4.0%)
- 〈참고〉
- * 일반 산업: 기계/자동차/금속, 음식료/섬유/기타제조, 도소매/연구개발/기타서비스
- * 첨단산업: 에너지/화학/정밀, 의료/제약,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통신기기, 소프트웨어개발/IT 기반 서비스, 정보 통신/방송서비스
- 이러한 산업구조 전환은 과거 주로 인터넷 서비스와 게임, 모바일 콘텐츠 등 ICT 중심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던 것에서 반도체 장비, 바이오 헬스, 인공지능, 로봇, 미래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사이버보안 등을 아우르는 딥테크 분야로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냄.
 - 추후 살펴보는 벤처천역기업 산업분포에서 이와 같은 산업 전환은 더 뚜렷



자료 : 벤처기업협회(2025)

[그림 4] 벤처기업 첨단산업과 일반산업 비중 추이

- 소프트웨어개발, 정보통신, 기타서비스 등 3대 업종으로의 편중이 심화됨
 - 3대 업종 비중은 2014년 29.8%에서 2024년 32.1%로 2.3%p 상승했으며, 비중이 지속적 증가하고 있고, 2021년 이후 순위 변동 없이 고착화
 - 기존 주력 제조업(기계·기타제조)의 감소가 지속되고, 2020년 이후 3대 업종이 모두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며 산업구조 개편이 두드러지는 양상



자료 : 벤처기업협회(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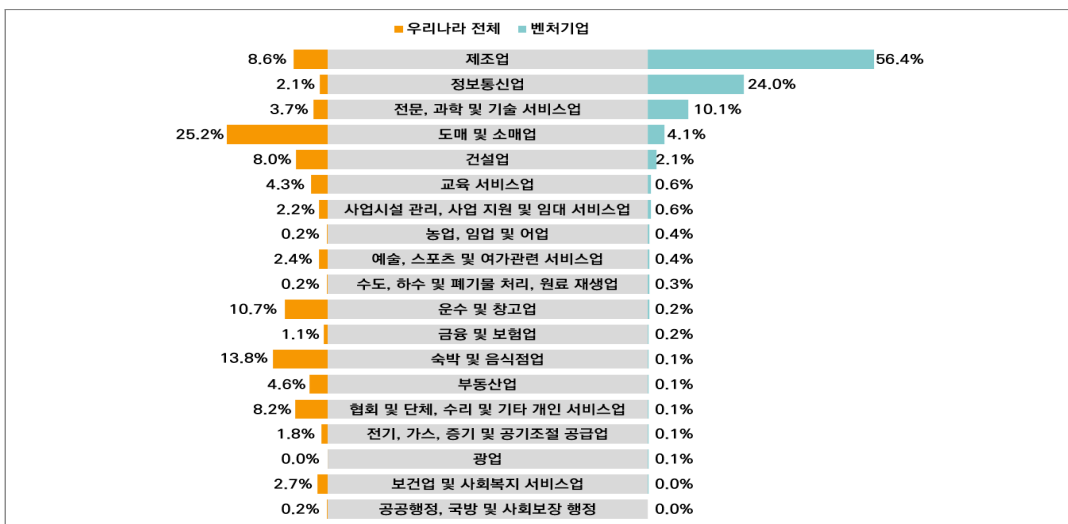
[그림 5] 벤처기업 3대 업종 비중 추이

- 이러한 벤처기업 산업구조는 전체 산업구조에 비교할 때, 제조업과 첨단기술 기반 산업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정보통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도·소매업의 뚜렷한 성장세라는 특징이 있음,
- 우선 한국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은 8.6%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 비하여 벤처기업은 56.4%로,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정보통신업 또한 전체 산업에서는 2.1%에 불과하지만, 벤처기업에서는 24.0%로 큰 비중
- 또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또한 전체 산업은 3.7%, 벤처기업은 10.1% 비중을 차지해 벤처기업의 차별화된 분야
-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전체 산업에서 2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벤처기업에서는 4.1%에 그쳤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도 전체 산업 13.8%, 벤처기업에서는 0.1%로 산업구조간 차별성
- 한편 벤처기업은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기술 기반 서비스와 유통 분야로 진출이 확대되어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도·소매업 비중이 상승한 반면 전체 산업에서는 건설업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처럼 벤처기업은 전체 산업과는 차별화된 기술 기반 산업이 확대

* 벤처기업 제조업 비중 변화(2014~2023, %): 67.9 → 56.4 (-11.5%p)

* 벤처기업 성장업종 비중 변화(2014~2023, %): 정보통신업 20.2→24.0,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 10.1, 도·소매업 1.5 → 4.1

* 전체 산업 건설업 비중 변화 : 2014년 3.4% → 2023년 8.0%



자료 : 벤처기업협회(2025)

[그림 61] 전체 업종별 비중과 벤처기업 업종별 비중 비교(2023년 KSIC 10차 대분류 업종)

3. 벤처기업 고용현황

- 2024년 벤처기업의 종사자는 828,378명이며 기업당 평균 종사자는 23.4명으로 추정
- 전년 대비 종사자 수는 11.4% 감소(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7.5% 감소)
- 정규직 종사자는 총종사자의 95.3%, 비정규직 종사자는 4.7%, 남자 종사자는 579,899명(평균 16.4명), 여성 종사자는 248,478명(평균 7.0명)

〈표 4〉 벤처기업 종사자 수 증감현황

(단위 : 명)

구분		2023년 기준			2024년 기준			전체 증감률(%)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총 종사자수	전체	665,304	269,405	934,708	579,899	248,478	828,378	-11.4
	평균	18.0	7.3	25.3	16.4	7.0	23.4	-7.5
총 정규직수	전체	640,481	255,964	896,445	555,025	234,542	789,566	-11.9
	평균	17.3	6.9	24.3	15.7	6.6	22.3	-8.2
총 비정규직수	전체	24,823	13,440	38,263	24,875	13,937	38,811	1.4
	평균	0.7	0.4	1.0	0.7	0.4	1.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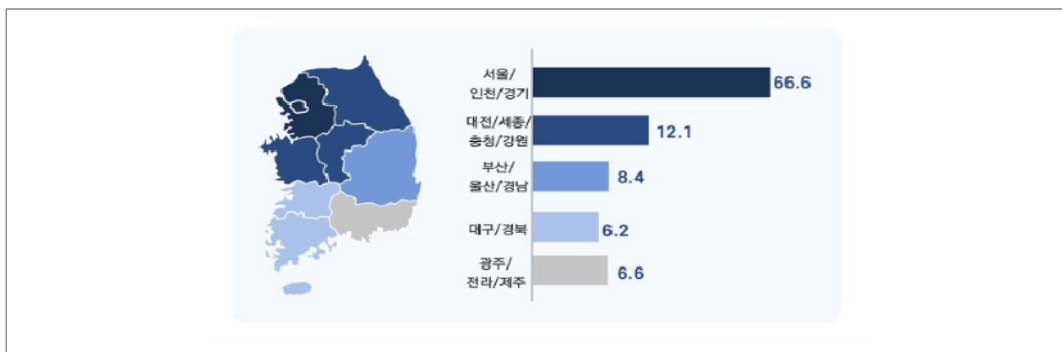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5), 2025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업종별로 의료 제약 업종의 평균 종사자 수는 31.7명으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많았으나, 전년에 비하여 6.2% 감소하였으며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업종은 15.3%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이 감소함
-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업종의 평균 종사자 수는 29.6명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하여 유일하게 평균 종사자 수가 증가
-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업종의 전체 인력 중 39.3%가 R&D 분야 인력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연구개발 인력의 비중이 높고, 에너지/화학/정밀, 의료/제약, 기계/자동차/금속,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 제조 업종의 인력 중 40% 이상은 생산 인력
- 한편 벤처기업 종사자 중 49.8%(평균 11.7명)는 대졸자이며, 고졸 이하인 경우는 25.6%(평균 6.0명)로 나타남
- 전문대졸인 경우는 14.9%(평균 3.5명), 석·박사인 경우는 9.7%(평균 2.3명)
-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80.2%) 및 정보 통신/방송서비스(77.2%) 인력 중 77% 이상이 대졸 이상 학력자로 다른 업종에 비해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음. 반면 생산 인력의 비중이 높은 기계/자동차/금속(39.6%)과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 제조(417%)는 다른 업종에 비해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낮음

- 연령대별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벤처기업 종사자 중 49.6%가 30대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40대 종사자는 26.2%, 50대 종사자는 16.7%로 구성됨
- 30대 이하 종사자 비중이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는 64.4%, 정보 통신/방송서비스는 62.4%로 두 업종 모두 60%를 넘어 다른 업종에 비해 인력 구성이 젊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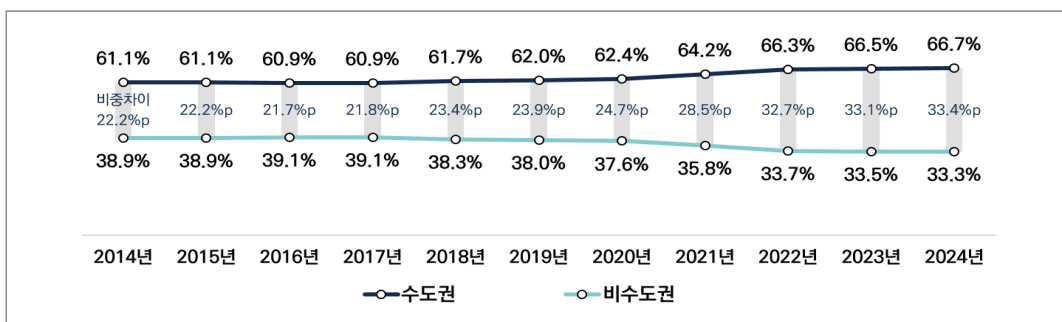
4. 벤처기업 지역별 현황 및 지역생태계 구조

- 2024년 전체 벤처기업의 31.7%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음
 - 서울 30.3%, 인천 4.6%로 수도권에 벤처기업의 66.6%가 위치하고, 대전 4.1%, 부산 4.0%가 소재하고 2014년 이후 경기도의 벤처기업은 연평균 3.9% 증가
 - 수도권 3개 지역 벤처기업 수 연평균 증가율은 비수도권에 비하여 빠르게 상승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비중 차이(%p)'는 2014년 22.2 에서 2024년 33.4를 기록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5), 2025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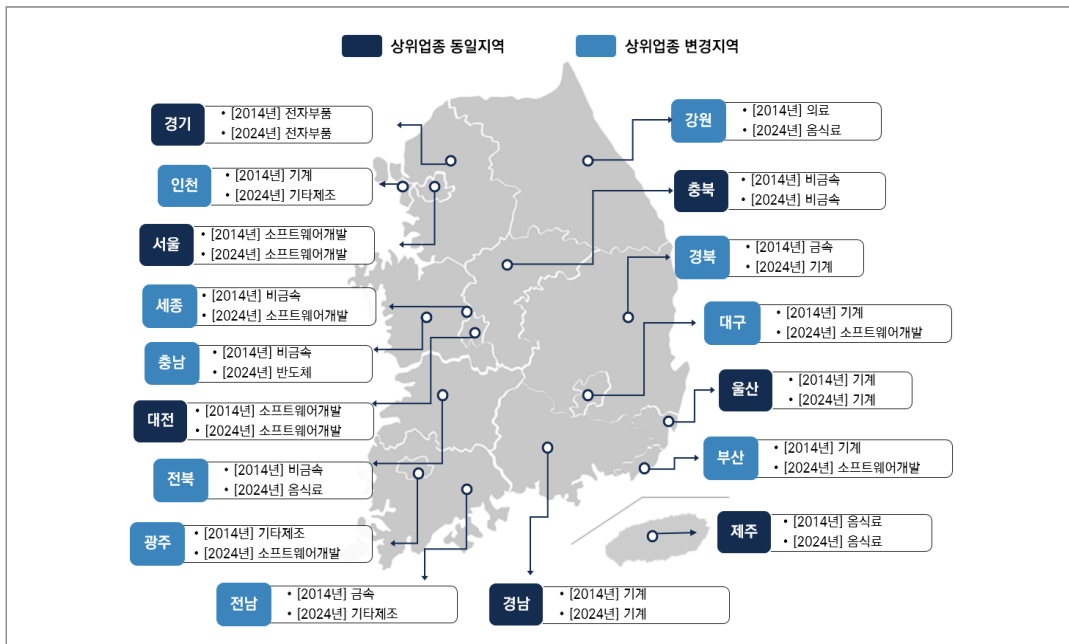
[그림 7] 지역별 벤처기업 현황



자료 : 벤처기업협회(2025)

[그림 8] 수도권, 비수도권 벤처기업 비중 차이

- 2014~2024년 지역별 상위 업종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7개 지역은 상위 업종이 10년 동안 변화하지 않았고 10개 지역은 변경됨
- 업종 동일지역은 서울·대전 ‘소프트웨어개발’, 울산·경남 ‘기계’, 경기 ‘전자부품’, 충북 ‘비금속’, 제주 ‘음식료’가 상위권 유지
- 업종 변경지역은 세종·광주·대구·부산 ‘소프트웨어개발’, 인천·경남 ‘기타제조’, 전북·강원 ‘음식료, 충남 ‘반도체’, 경북 ‘기계’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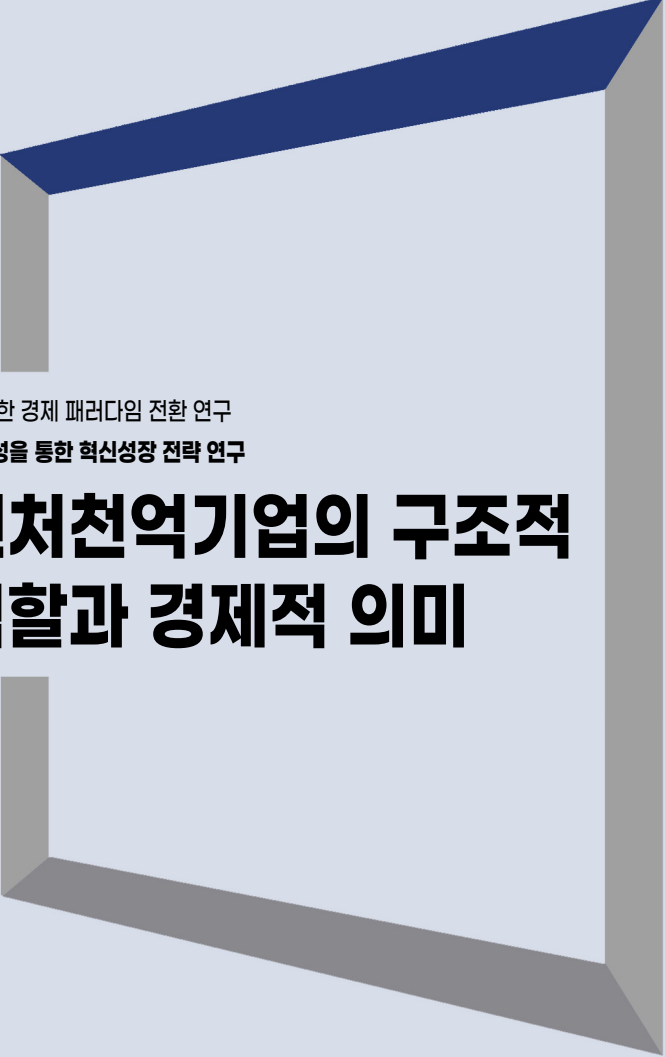
자료 : 벤처기업협회(2025)

【그림 9】 지역별 상위 업종 비교(2014~2024)

- 한편 벤처생태계는 특정 기업의 성과만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기보다 지역 차원의 혁신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발전하는 특징을 가짐
- 기술혁신은 연구기관, 대학, 투자기관, 대기업, 전문인력, 문화적 개방성 등이 결합한 공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세계 주요 혁신국가들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
-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만의 신주과학단지(Hsinchun Science Park), 싱가포르의 원노스(one-north)는 모두 기술혁신과 벤처생태계가 공간적으로 집적된 대표적 사례

- 한국도 역시 벤처생태계가 전국에 균등하게 분포하기보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되는 양상을 보임
 - 수도권을 중심으로 혁신역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며 서울과 경기도가 국내 벤처기업과 벤처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자본과 인재,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본사와 공급망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산업구조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
- 서울은 금융과 플랫폼 서비스 중심 벤처기업이 집적되는 경향을 보임
 - 강남과 테헤란로 일대는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IT서비스 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핀테크와 플랫폼 산업 중심 창업이 활발
 - 또한 주요 대학과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서 초기 창업과 투자유치에 유리한 환경
 - 그러나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제한된 산업부지 등으로 인해 제조업 기반 딥테크 벤처 성장에는 제약이 크다는 점에서 한계
- 경기도는 서울과 구별되는 독특한 벤처생태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경기도는 서울의 배후지역이라기보다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로봇, 디지털 서비스 등과 첨단제조업이 결합한 국내 최대의 혁신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단일 산업 중심의 클러스터가 아니라 'ICT + 반도체 + 바이오 + 로봇 + 미래모빌리티'가 결합한 다층적 혁신생태계(multi-layer innovation ecosystem)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
 -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ICT 클러스터와 용인·이천 반도체 벨트, 화성·평택 미래차 및 첨단제조업 기반 클러스터, 수원·광교 연구개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한국 벤처생태계의 핵심 거점화
 - 판교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벤처생태계의 상징적 중심축으로 게임, 인공지능,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기업이 집적된 공간으로 발전하였으며, 스타트업과 성장벤처, 대기업 연구개발센터,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가 함께 모여 있는 복합 혁신생태계를 형성하여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가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기업간 협업과 인재 이동, 투자 연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형 실리콘밸리라고 평가받음
 - 용인과 이천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위치하여 반도체 장비와 소재, 설계(fabless), 공정 자동화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제조업 기반 딥테크 성장 거점화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대기업 중심 생산체계를 넘어 기술기반 벤처기업이 공급망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제공

- 화성과 평택은 미래모빌리티와 첨단제조업 기반 혁신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와 관련된 기업들이 집적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협력하는 기술 기반 벤처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
- 수원과 광교는 대학과 연구기관 중심 연구개발 역량이 강한 지역으로 바이오와 의료기술, 연구 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벤처기업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벤처천억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전략 연구

V. 벤처천억기업의 구조적 역할과 경제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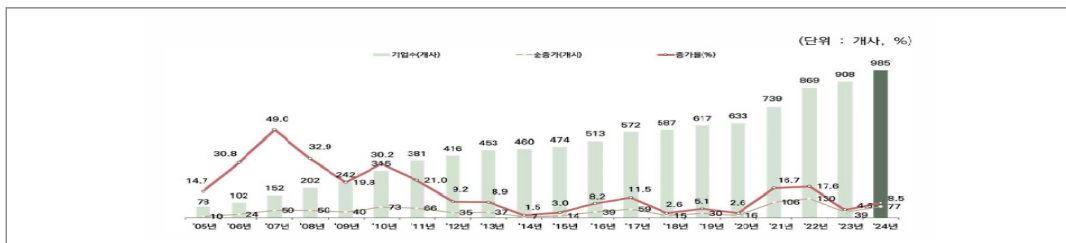
V. 벤처천역기업의 구조적 역할과 경제적 의미

- 벤처천역기업이란 199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1회 이상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136,614개 사(2024년 말까지 누적)를 대상으로 2024년 결산 기준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의미함(중소벤처기업부 2025)
- 고성장 벤처천역기업이란 매출 1,000억 원 이상이며 최근 3년 이상 연속 매출성장률이 20% 이상인 기업
- 벤처천역기업은 생산성과 수출, 기술혁신,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 측면에서 일반 중소·중견기업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보이며 성장잠재력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특히 저성장과 생산성 둔화가 구조적 약점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벤처천역기업은 이들 약점을 돌파할 핵심 동력 가운데 하나

1. 벤처천역기업 현황

1) 벤처천역기업 수

- 1998년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누적 벤처확인이력기업 가운데 2024년 결산 기준 1,000억 원을 돌파한 벤처천역기업은 총 985개로 조사됨(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2025)
- 이는 2023년 대비 77개(8.5%)가 증가한 수치이며, 2024년 중 창업 이후 매출 1,000억 원을 최초로 달성한 신규 기업은 115개(11.7%)이고 기존 기업은 870개(88.3%)
- 2024년 고성장 벤처천역기업은 81개로 전체의 8.2%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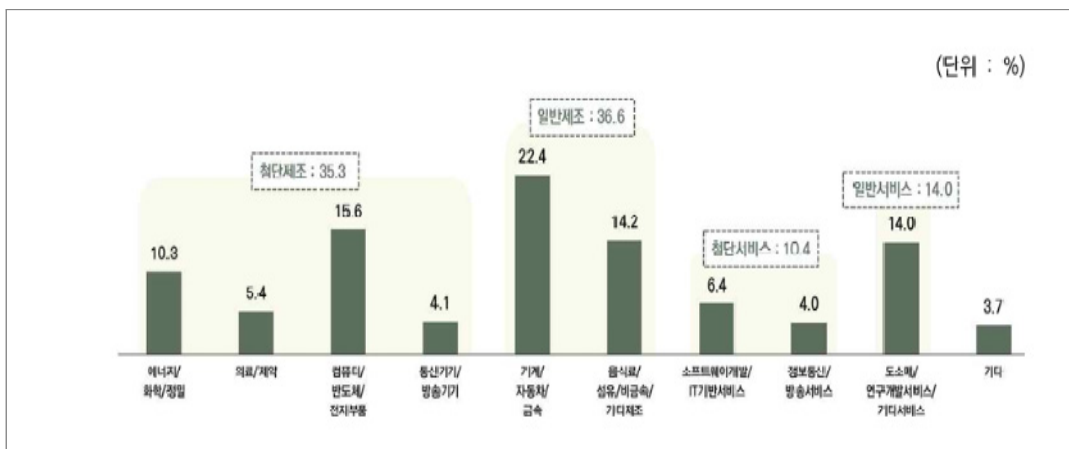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2025)

[그림 10] 연도별 벤처천역기업 현황

2) 벤처천역기업의 산업 및 매출 규모별 분포

- 5대 업종별로 벤처천역기업의 산업분포를 살펴보면 일반 제조업이 36.6%, 첨단제조업 35.3%, 일반서비스업 14.0%의 비중으로 나타남
- 10대 세부 업종 중에서는 기계/자동차/금속이 2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5.5%,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 제조 14.2% 등 분포
- 신규 벤처천역기업을 5대 업종별로 분류하면 첨단제조업 36.5%, 일반제조업 27.0%, 일반서비스업 20.9%의 순으로 나타남
- 10대 세부 업종 중에서는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20.9%,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 제조 16.5%,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4.8%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의료/제약은 3.5%로 가장 낮은 비중
- 고성장 벤처천역기업은 5대 업종 중 첨단제조업이 3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비고성장 벤처천역기업은 일반제조업이 3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10대 세부 업종 중에서는 고성장 벤처천역기업의 경우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25.9%로 가장 높았으며 비고성장 벤처천역기업은 기계/자동차/금속 분야가 23.5%로 높은 비중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2025)

[그림 11] 벤처천역기업의 업종별 분포 현황

- 매출 1,000억 원 이상 2,000억 원 미만 구간에 속한 벤처천역기업의 비중이 다른 규모의 기업보다 높게 나타남

- 전체 벤처천역기업 중 61.5%, 신규 벤처천역기업 중 95.7%, 고성장 벤처기업 중 58.0%가 1,000억~2,000억 원대 매출을 기록
- 1조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기업은 28개(2.8%)이며, 신규 기업은 없고 고성장 벤처기업은 2개(2.5%)

〈표 5〉 벤처천역기업 매출 규모별 분포 현황

(단위: 원,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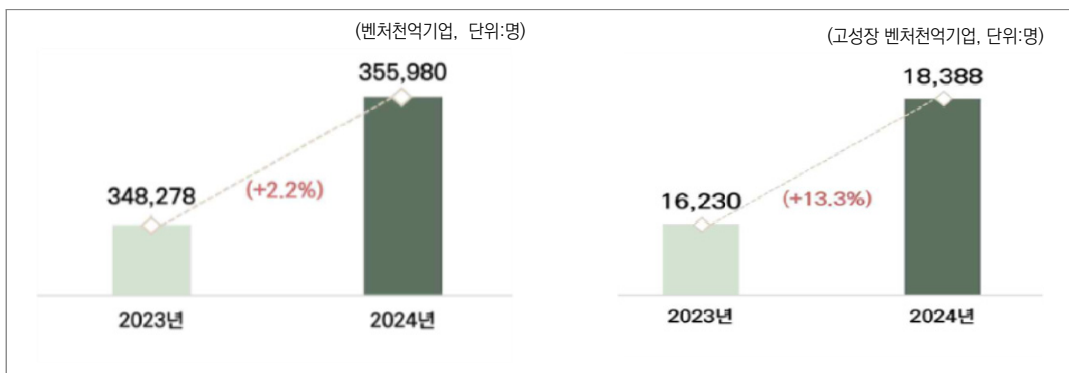
구분	전체 벤처천역기업		신규 벤처천역기업		고성장 벤처천역기업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1~2천억 미만	606	61.5	110	95.7	47	58.0
2~3천억 미만	194	19.7	3	2.6	13	16.0
3~5천억 미만	100	10.2	2	1.7	10	12.3
5천억 1조 미만	57	5.8	-	-	9	11.1
1조 이상	28	2.8	-	-	2	2.5
전체	985	100	115	100	81	100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2025)

3) 벤처천역기업 고용현황

- 2024년 벤처천역기업의 전체 종사자는 355,980명으로 2023년에 비해 2.2% 증가한 7,702명임
 - 기업당 평균 종사자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359.4명이며, 통신기기/방송기기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당 평균 종사자가 증가
 - 업종별 평균 종사자는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635.2명, 정보통신/방송서비스 617.3명, 의료/제약 583.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종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의료/제약(34.2명 증가)
- 2024년 신규 벤처천역기업의 종사자는 20,343명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함
 - 기업당 평균 종사자는 약 178.4명으로 전년의 161.1명에 비하여 10.7% 증가하였으며 모든 업종에서 평균 종사자가 증가하였는데 종사자 수가 많은 업종은 의료/제약 340.8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262.2명
 -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업종의 평균 종사자는 122.3명으로 전년 대비 45.8%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에너지/화학/정밀과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업종도 각각 17.0%, 10.5% 증가
- 고성장 벤처천역기업의 종사자는 18,388명으로 전년의 16,230명에 비하여 13.3% 증가

- 기업당 평균 종사자는 227.0명으로 전년의 200.4명에 비하여 13.3% 증가하였는데 통신키기/방송기기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평균 종사자가 증가
- 업종별 평균 종사자는 정보통신/방송서비스 445.0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392.0명, 의료/제약 334.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료/제약은 전년 278.8명 대비 20.1% 증가하여 업종 중 가장 높은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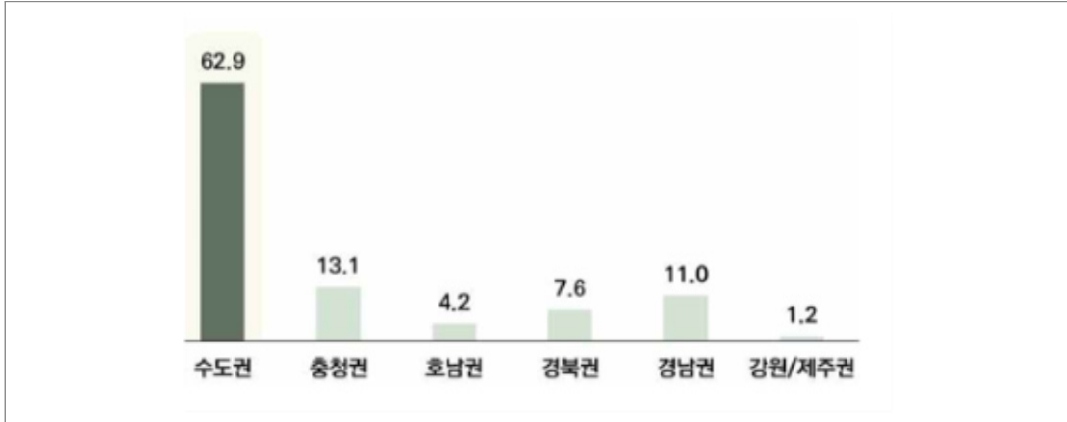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2025)

【그림 12】 벤처천역기업 및 고성장 벤처천역기업 종사자 수

4) 벤처천역기업의 지역별 분포

- 전체 벤처천역기업의 권역별 소재지(본사 기준)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이 전체의 62.9%로 가장 높았으며, 충청권 13.1%, 경남권 11.0%, 경북권 7.6% 등 순으로 나타남
- 세부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이 전체의 33.0%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5.9%, 충남 5.6%, 충북 5.1% 순으로 분포
- 신규 벤처천역기업의 권역별 분포는 수도권에 소재한 비율이 66.1%, 충청권 10.4%, 경남권 9.6%, 경북권 7.8% 순으로 세종과 광주에는 해당 기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고성장 및 비고성장 벤처천역기업 모두 수도권에 각각 71.6%, 62.2%가 위치하여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집중도를 보임
- 고성장 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은 모두 10% 미만에 그치며, 특히 강원/제주권과 호남권 비중은 매우 낮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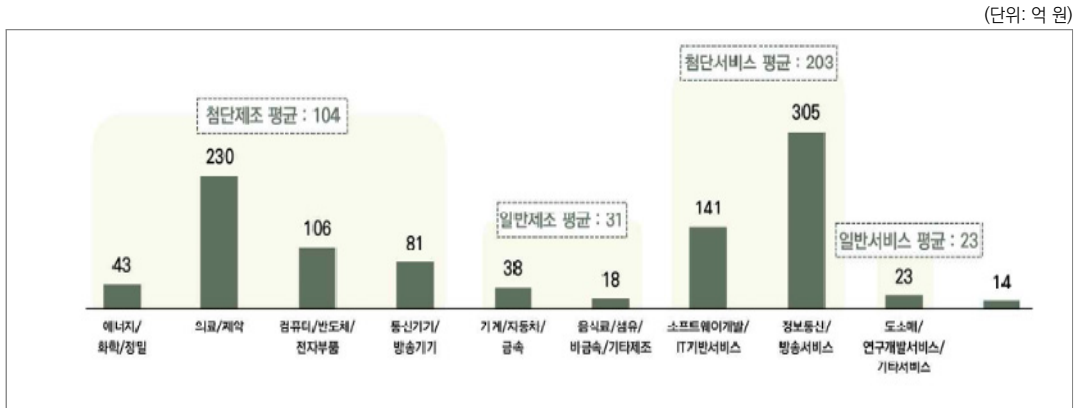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2025)

[그림 13] 벤처천역기업 권역별 분포 현황

5) 벤처천역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 2024년 전체 벤처천역기업의 총 연구개발비는 7조 원이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은 2.7%로 나타남
 - 기업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73억 원이며, 업종별로는 정보통신/방송서비스 305억 원, 의료/제약 230억 원,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141억 원
 - 특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의료/제약이 8.3%로 가장 높으며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는 0.8%로 가장 낮음
- 2024년 신규 벤처천역기업의 총 연구개발비는 2,944억 원이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2.0%로 나타남
 - 기업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26억 원이며, 업종별로는 의료/제약 66억 원,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52억 원이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 또한 의료/제약 6.1%,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3.4% 순
 - 반면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의 평균 연구개발비는 7억 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은 0.6%에 불과
- 2024년 고성장 벤처천역기업의 총 연구개발비는 1,764억 원이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0.8%로 나타남
 - 기업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22억 원이며, 업종별로는 의료/제약 65억 원,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60억 원 순이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의료/제약이 3.3%로 가장 높음

- 반면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업종은 기업당 평균 연구개발비 5억 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 0.1%에 불과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2025)

[그림 14] 벤처천억기업 업종별 평균 연구개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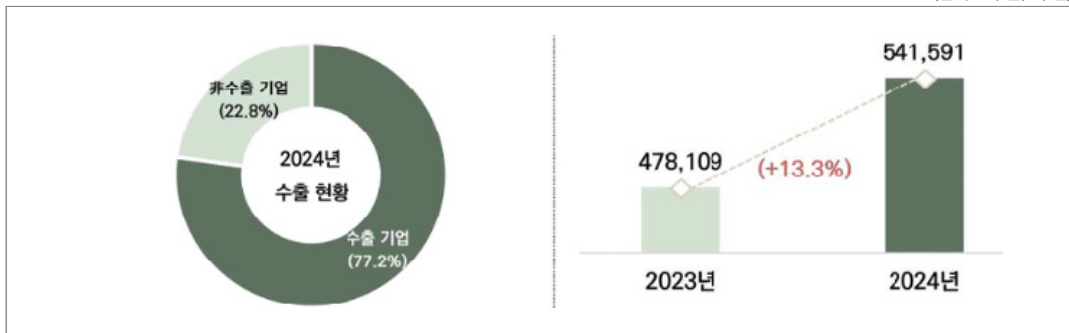
6) 벤처천억기업의 수출

- 벤처천억기업 중 2024년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784개로 전체의 77.2%이며, 총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54조 원으로 국가 전체 수출증가율 8.1%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함
- 제조업 분야 수출 기업 비중은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분야는 50% 이하로 나타남
-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업종은 수출 기업 비중이 96.7%에 달하며, 수출 실적은 15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0% 증가하여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의료/제약 업종은 기업당 평균 수출 금액이 1,466억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율 53.2%로 업종 중 최고 수준
- 벤처천억기업 수출대상국 비중은 중국(20.5%), 미국(19.0%), 베트남(13.2%), 헝가리(4.2%), 일본(3.6%) 순이며, 상위 품목은 의약품(혈액·백신·면역물품 등) 7.2%, 전자집적회로 6.5%,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및 부품 6.3%, 기타 기계류 4.1%, 화장품류 3.8% 등임
- 신규 벤처천억기업 114개 중 2024년 수출 기업은 76개(66.7%)로 나타났으며 수출 실적은 2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1% 증가함
-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20억 원, 전년 대비 -57.6%)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수출 실적이 전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는데 특히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업종은

수출 기업 비중 100%, 수출 금액 7,414억 원(전년 대비 85.6% 증가), 기업당 평균 수출 금액 436억 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율 38.1%로 모든 항목에서 업종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

- 통신기·방송기기 업종의 수출실적은 2,271억 원,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수출 실적은 2,332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337.6%, 269.0% 급증
- 고성장 벤처천역기업 81개사 중 2024년 수출 기업은 58개(71.6%)이며, 수출 실적은 4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2% 증가함
- 에너지/화학/정밀 업종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115.0% 증가한 1조 6,000억 원으로 전체 업종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수출 기업 비중도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과 동일한 100.0%를 기록
- 기업당 평균 수출 금액과 매출액 대비 수출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1,202억 원, 48.7%)이며 기계/자동차/금속과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업종은 전년 대비 수출이 각각 2.4%, 63.0 감소

(단위: %, 건, 억 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2025)

[그림 15] 전체 벤처천역기업 수출기업 비중과 수출 실적

2. 벤처천역기업과 일자리 효과

- 벤처천역기업이 한국경제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는 고용 효과에 있음
 - 한국경제가 저성장-저출생, 청년 고용 불안,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복합적 문제를 좀처럼 완화·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벤처천역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양과 질은 중요한 정책적 의미
 - 전통적으로 대기업 제조업과 공공부문이 안정적 고용을 제공하는 핵심 영역으로 기능해 왔지만, 최근에는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 확산으로 인해 신규 고용창출 능력이 점차 제한되는 경향
 - 이에 따라 혁신기업 중심으로 새로운 고용 창출 전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벤처천역기업은 그 중심에 위치
- 우선 벤처천역기업은 일반 스타트업과는 구별되는 고용 특성을 가짐
 - 창업 초기 스타트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조직 규모가 작고 사업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제한적이지만 벤처천역기업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시장성을 확보한 기업군이라는 점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용 창출이 가능
 - 앞서 조사한 통계에서 2024년 전체 벤처기업 고용자 수는 전년대비 11.4% 감소하였지만 벤처천역기업의 고용자 수는 2.2% 증가
 - 동시에 대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수평적 조직문화와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 인재 유입에도 유리한 특성
- 특히 벤처천역기업은 단순한 고용 규모 확대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good jobs)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이 부각
 - 미국 하버드 대학 대니 로드릭(Dani Rodrik)교수가 제시한 신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은 산업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특정 산업의 보호나 기업 지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고 보수가 좋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있다고 주장(Rodrik, 2022)
 - 특히 첨단기술 발전이 반드시 고용 증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술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업군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
- 벤처천역기업은 생산성과 임금이 동시에 높은 고용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
 -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은 비교적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생산성과 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고, 기술집약적 성장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며 임금 수준 역시 높은 경향

- 이러한 관점에서 벤처천역기업은 혁신과 고용을 동시에 창출하는 성장기업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벤처천역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면서 연구개발과 생산, 마케팅, 글로벌 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인력 수요를 창출
 -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전문직 기술직 중심 일자리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
- 또한 벤처천역기업의 고용효과는 직접고용에만 그치지 않음
 - 특정 성장기업이 확대되면 협력업체와 공급망 기업, 연구기관, 전문서비스 기업 등 주변 산업에서도 연쇄적 고용효과가 발생
 - 예를 들어 반도체 장비 벤처기업 성장은 부품업체, 정밀기계, 물류, 유지 보수 산업까지 고용 확대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바이오 벤처기업은 의료서비스와 임상실험, 데이터 분석 산업과 연결되며 간접고용을 확대
- 김민호(2026)는 고성장 벤처기업이 매출과 고용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 내 혁신을 촉진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높인다고 주장
 - OECD(2021)는 전체 기업이 일자리와 성장에 균등하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바 있으며, 한국에서도 고성장기업이 전체 기업 연간 매출액 증가분의 약 50%, 일자리 증가의 38%를 기여

3. 벤처천억기업의 혁신 및 수출

1) 벤처천억기업과 혁신

- 벤처천억기업은 무엇보다 기술혁신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기술혁신은 단순히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산업 전체의 생산방식과 경쟁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국가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결
 - 특히 최근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공세적인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도 혁신역량이 뛰어난 벤처천억기업의 역할은 중요
- 벤처천억기업은 스타트업의 혁신성과 대기업의 상용화 역량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성장층이기 때문에 기술혁신 확산의 핵심 매개체 역할을 수행
 - 스타트업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생산능력과 자본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대기업은 조직 관성과 기존 사업구조 때문에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에 제약받는 경우가 많지만, 벤처천억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직 안정성과 생산능력을 확보하면서도 혁신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을 산업화하기에 유리한 측면
 -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이를 실제 제조업과 금융, 의료, 물류 시스템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솔루션 개발과 고객 확보, 시스템 통합 역량 등이 필요한데 벤처천억기업은 이러한 중간 단계에서 혁신을 산업에 적용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벤처천억기업은 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특징을 가짐
 - 특정 벤처기업의 성장은 단순히 개별 기업 성과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와 공급망, 전문 서비스기업, 연구기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성공한 벤처기업 창업자가 투자자와 베노, 재창업자로 다시 생태계 안에 참여하는 경우 혁신의 선순환구조가 형성

2) 벤처천억기업과 수출

- 벤처천억기업은 수출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한국 경제는 내수시장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장의 상당 부분이 수출 확대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쟁 심화와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전통적 제조업 수출만으로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

- 벤처천역기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수출동력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정 기술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확대해 나가고 있음
- 반도체 장비와 소재, 산업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디지털 콘텐츠, 바이오 솔루션 분야에서 이미 틈새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점유율도 확대
- 특히 벤처천역기업의 수출은 기존 대기업 중심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오랫동안 소수 대기업과 특정 산업의 수출에 집중되었던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변동에 취약하였지만, 벤처천역기업의 성장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특화 기술 기반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구조 다변화와 수출 포트폴리오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됨

4. 벤처천억기업의 유니콘·글로벌 기업 전환

1) 벤처천억기업의 유니콘 후보군 확대

- 벤처천억기업이 중요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현재의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미래 유니콘 기업과 글로벌 혁신기업의 핵심 후보군(pool)이기도 하기 때문임
- 한국은 매출 1조 원 이상 유니콘 기업이 2023년 25개에서 2024년 28개로 증가하였으며 5천억~1조 원 미만 기업도 44개에서 57개로 증가하면서 유니콘 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졌고 정책 역량도 집중
- 최근 국제기관과 다수 국가에서 유니콘 기업 수 증가를 혁신생태계 경쟁력을 상징하는 대표적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 유니콘 기업은 단기간에 등장하지 않음
- 대부분 유니콘 기업은 창업 이후 기술개발과 시장검증, 조직 확대, 대규모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단계를 경험하는데 벤처천억기업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이전 핵심 성장층(pre-unicorn layer)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내포
-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 생존단계에서 가장 높은 실패 위험에 직면해서 새로운 기수와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장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금 부족, 조직 운영 미숙, 경쟁 심화 등으로 상당 수 기업이 도태
- 이러한 초기 단계를 넘어 일정 수준의 고객과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단계가 바로 스케일업 과정

〈표 6〉 국가별 벤처 스타트업·유니콘 기업 개념 비교

	한국	미국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벤처기업	법적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 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3유형으로 분류. 모험적 투자와 기술 기반 강조	모험적 투자 기반 신생기업. 제도적 분류보다는 시장 중심	기술혁신과 하이테크 중심. 벤처캐피탈과 군사·대학연구기반 강화.	민간의 보수적 투자 문화로 인하여 정부 지원 확대중. 기술기반 중심 육성	정부 펀드와 글로벌VC 결합. 동남아 진출 거점역할
스타트업	창업후 7년 이하 기업. 초기 (3년 미만)와 도약기(3~7년) 로 구분. 혁신성과 성장성 강조	기간 기준 없음. 혁신적 아이디어와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신생 기업.	혁신기업을 창출하는 국가 시스템을 의미하는 '스타트업 네이션'. 혁신성과 기술력을 강조. 기간 기준 없음	기간 기준 없음.	글로벌 시장 확장을 목표로정부 지원은 받지만 기간기준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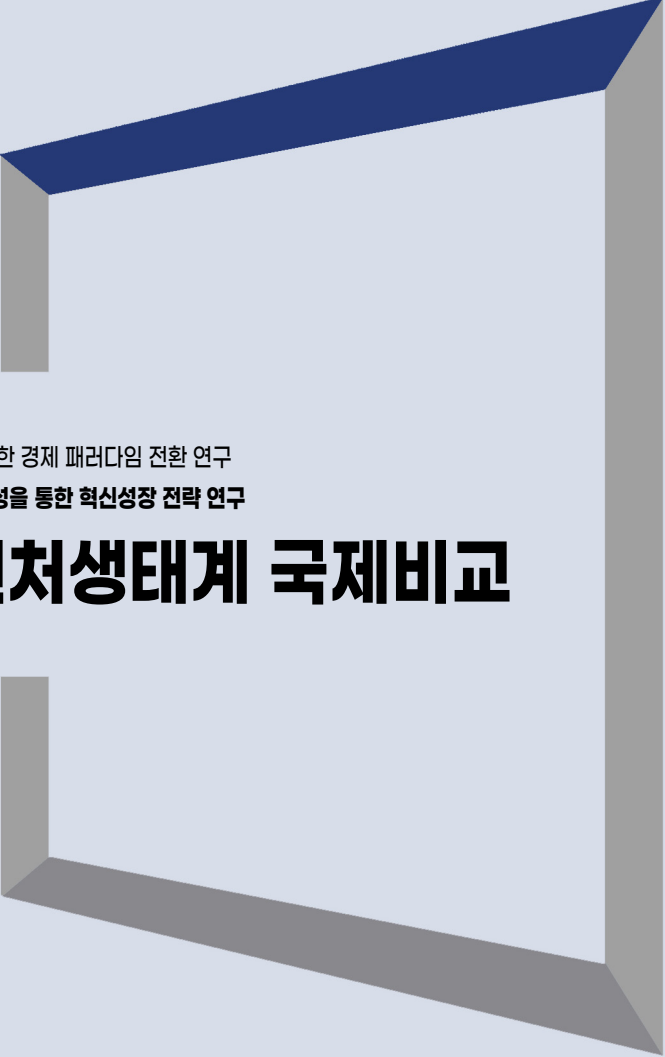
	한국	미국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유니콘 기업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실리콘 밸리 중심. 민간 VC주도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사이버보안 및 AI 강세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유니콘 수 적음.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비상장 스타트업. 글로벌허브전략.

- 벤처천역기업은 이러한 초기 위험 구간을 통과한 기업군이라는 점에서 유니콘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
 - 특히 기술 상용화와 조직 운영 경험을 축적하였고 생산역량과 공급망 구축, 전문 인력 확보 측면에서도 스타트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역량을 보유하여 글로벌 경쟁을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구비
- 실제로 세계 주요 혁신기업들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정 수준의 성장기업 단계를 거친 이후 유니콘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임
 -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애플 등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기술기업 역시 창업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라기 보다 반복적인 투자유치와 시장 확장, 조직 고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벤처캐피털, 글로벌 네트워크, 인수합병, 대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이스라엘 역시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데 내수시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상당수 벤처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전략을 채택하고 기술 상용화와 조직역량 확보에 노력한 것이 특징

2) 유니콘 성장 제약 요인

- 최근 한국 유니콘 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벤처천역기업에서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여전히 제한적
 - 특히 상당수 기업이 국내시장 중심 성장에 머무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 이후 성장 정체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음
 - 이는 한국 벤처생태계가 창업과 초기 성장에는 비교적 강점을 가지지만 글로벌화(global scaling) 단계에서는 구조적 병목이 존재함을 의미
-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내수시장 의존성인데 한국은 일정 규모의 소비시장과 높은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이 국내시장만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초기 성장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며 특히 플랫폼 산업에서는 글로벌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한데 국내시장 중심 성장 이후 해외진출 전략은 한계를 노정
- 또한 대규모 성장금융이 부족한 점도 약점인데 창업 초기 (seed) 투자와 초기 벤처투자는 비교적 확대되었으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대규모 성장자본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
- 특히 실리콘밸리와 비교하면 후기 단계(late-stage) 투자시장과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여 일부 유망 벤처기업이 해외의존도가 높아지거나 성장 속도가 둔화하는 문제를 경험
- 인수합병 시장 미성숙 역시 중요한 한계임
-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성공한 벤처기업 상당수가 대기업과 전략적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은 기업공개(IPO) 중심 회수구조가 강하여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 사다리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혁신의 선순환 구조가 미흡
-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으로 기업이 성장하면 받게 되는 각종 규제도 문제
-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벤처천억기업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저해할 우려
- 벤처천억기업은 향후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전략자산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에서는 대기업 혼자만의 혁신보다 스타트업과 서장벤처, 벤처천억기업이 연계된 다층 혁신생태계가 경쟁력을 좌우
-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벤처천억기업은 스타트업의 혁신을 산업화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연결하는 ‘성장 허브(growth hub)’역할을 수행
- 결국 유니콘 기업은 정책이 직접 만들어 내는 대상이라기보다 성장생태계가 성숙할 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유니콘 기업 수 자체를 증가시키는 정책 접근보다는 벤처천억기업 층을 두텁게 형성하고 글로벌 성장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전략 연구

VI. 벤처생태계 국제비교

VI. 벤처생태계 국제비교

- 글로벌 벤처생태계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단순한 창업 수나 투자 규모뿐 아니라 국가별 혁신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측정함
- 과거에는 벤처기업 수와 창업률, 벤처투자 규모가 주요 평가 지표이었지만 최근에는 창업환경(startup environment), 스케일업 환경(scaleup environment), 규제 수준(regulatory quality), 글로벌 연결성(global connectivity), 혁신역량(innovation capability), 인재 확보(talent access), 투자 생태계(investment ecosystem), 시장 접근성(market accessibility)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 StartupBlink, Startup Genome,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등 3개 국제 연구기관이 평가한 벤처생태계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벤처생태계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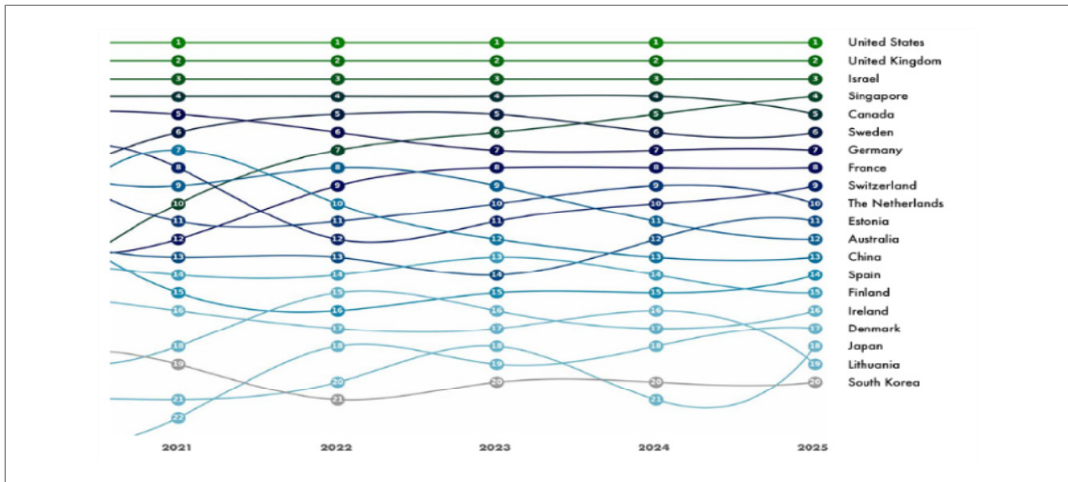
1. 국제기관의 벤처생태계 환경평가 비교 분석

1) StartupBlink의 'Global Startup Ecosystem Index:GSEI 2025'

- 세계 118개국 1,473개 도시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비교·평가한 국제지표이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동 규모, 성과와 영향력, 기업 친화 환경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활동 규모(Quantity): 스타트업 수, 엑셀러레이터, 투자기관, 협력공간 등 생태계 참여자의 양적 기반을 측정하는 지표
- 성과와 영향력(Quality): 유니콘 기업 수, 대규모 회수(Exit), 글로벌 성공기업, 투자유치 성과 등 생태계의 질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 기업 친화 환경(Business Environment): 규제, 제도, 인프라, 정책환경, 창업 및 투자 여건 등 스타트업이 성장하기에 적합한 국가적 조건을 평가하는 지표
- 2025년 보고서는 기존 순위 외에도 생태계 성장률(Annual Ecosystem Growth)을 새롭게 포함하여 발표
- 2024년과 2025년 총점 변화를 비교하여 각 국가와 도시의 생태계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측정

- 따라서 단순히 순위 변동만이 아니라 각국 생태계의 성장 속도와 동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
- 2025년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가 글로벌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음
- 미국은 부동의 세계 1위 스타트업 생태계 국가로 평가되는데 벤처캐피탈, 대형 기술기업, 글로벌 인재, 대학 및 연구기관, 회수시장이 결합한 세계 최대 혁신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음
- 다만 StartupBlink는 미국의 생태계 성장률이 상위권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 영국은 런던을 중심으로 금융, 핀테크, 글로벌 자본 접근성이 강점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2위, 이스라엘은 사이버보안, 국방 기술, AI 등 딥테크 중심 창업생태계가 강하고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강점으로 3위, 싱가포르는 정부주도의 강력한 정책 일관성, 글로벌 자본 유치, 외국인 창업자 친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캐나다를 제치고 4위
-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는 싱가포르, 중국, 일본, 한국을 비교함
- 싱가포르는 세계 4위, 아시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
- 중국은 세계 13위이면서 생태계 성장 속도가 아주 빨라 향후 순위의 도약 가능성을 예측
- 일본은 세계 18위로 상승하며 한국보다 앞선 순위를 기록
- 한국은 세계 20위로 전년과 같은 순위이며 아시아 4위 수준
- 한국의 2024년 스타트업 투자 유치 규모는 약 59억 달러, 연간 생태계 성장률은 23.7%로 조사됨
- 유니콘 기업은 13개, 2015년 이후 10억 달러 이상 대형 회수(Exit)는 8건이며 산업별로는 사회 및 여가(Social & Leisure) 분야가 세계 11위로 한국의 가장 강한 분야로 평가
-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률은 아시아 태평양 주요 경쟁국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는데, 생태계 성장을 측면에서 일본 35% 이상, 중국 45% 이상인 반면 한국은 24%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은 순위 자체는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적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
- 도시 차원에서는 서울 집중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2025년 글로벌 도시 경쟁력 순위 20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 한국은 글로벌 1,000대 스타트업 도시 안에 9개가 포함되었고, 이 가운데 6개 도시는 신규로 순위권에 진입

- 서울의 총점은 한국 내 순위 2위 대전보다 44배 이상 높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서울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고 파악



자료 : StartupBlink(2025)

[그림 16] 2025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 글로벌 순위

2) StartupBlink ‘Innovators Business Environment Index(IBEI) 2026’

- 스타트업이 벤처천역기업으로 성장하고 다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업 이후 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함
- 이런 관점에서 StartupBlink의 2026 IBEI는 혁신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제도적·경제적 환경을 125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
- IBEI는 Global Startup Ecosystem Index 스타트업 생태계 지수가 혁신성과와 결과를 측정하는 것과는 달리 혁신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 IBEI는 혁신가와 기업가의 관점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면서 경험하는 제도적 마찰(friction)의 정도를 측정함
- 이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설립과 운영 용이성(Ease of Operation a Business), 세제와 금융 등 사업 유인구조(Business Incentives), 국가신뢰도와 지배구조, 개방성 등 시장 인지도(Market Perception) 등 세 개의 핵심축을 활용
- 또한 규제 및 거버넌스, 자본 및 금융 인프라, 조세 환경, 디지털 인프라, 글로벌 개방성 등 다섯 개 기능영역을 중심으로 30개 이상의 세부 지표를 종합하여 국가별 순위를 산정

- 2026년 평가 결과 미국이 세계 1위, 싱가포르와 영국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함
 - 이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에스토니아 등이 상위 10위권에 포함. 특히 상위권 국가들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부담이 낮고 자본 시장 접근성이 우수하며 글로벌 인재와 기업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가라는 공통점을 보유
- 한국은 세계 32위를 기록하였는데 세계 20위를 기록한 생태계지수 순위보다도 낮은 수준임
 - 이는 한국은 창업과 활동 성과 자체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혁신가나 벤처기업이 중간 성장기업군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기업환경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 싱가포르 세계 2위, 일본 세계 8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동아시아 주요 경쟁국에 비하여 혁신가 친화적 또는 기업친화적 환경 구축에 다소 뒤쳐진 것으로 평가

〈표 7〉 혁신가 사업환경 평가지수 순위 (2026)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미국	100.00	9	사우디아라비아	82.880	17	호주	73.812	25	루마니아	70.448
2	싱가포르	99.145	10	에스토니아	78.997	18	불가리아	73.631	26	오스트리아	69.618
3	영국	93.900	11	뉴질랜드	77.740	19	핀란드	73.393	27	아이슬란드	69.293
4	스위스	86.901	12	스웨덴	77.012	20	덴마크	72.945	28	프랑스	69.257
5	아랍에미리트	86.222	13	룩셈부르크	76.136	21	노르웨이	72.388	29	대만	69.007
6	캐나다	86.144	14	아일랜드	75.448	22	리투아니아	71.981	30	체코	68.788
7	네덜란드	85.715	15	사이프러스	74.630	23	독일	71.922	31	포르투갈	68.471
8	일본	83.644	16	벨기에	74.409	24	이스라엘	70.523	32	한국	67.895

자료: StartBlink, Innovators Business Environment Index, 2026

3) Startup Genom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GSER 2026’

- 스타트업 제νομ�은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기관 가운데 하나임
- GSER 2026 보고서는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국제 비교자료
- 전 세계 350개 이상의 글로벌 생태계와 550만 개 이상의 스타트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되었고 10년 이상 연구와 80개국 이상에서 수행한 정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
- 평가의 핵심 지표는 성과(Performance), 자금 조달(Funding), 인재와 경험치(Talent & Experience), 시장 조사(Market Research), 사회적 연결성(Connectedness), 지식(Knowledge) 등임
- 성과지표는 기업가치와 대형 회수성과를 측정하며, 자금 조달은 투자자금 조달 역량을 평가
- 인재와 경험치는 창업가와 전문인력 수준을, 시장 조사는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사회적 연결성은 투자자와 기업 간 네트워크 수준을, 지식은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혁신 능력을 중점 평가
- 최근에는 AI 전환 역량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
- 특히 스타트업 제νομ�의 분석은 벤처천억기업과 유니콘 기업 육성전략을 논의하는데 유용함
- 스타트업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세계 시장으로 확장할 역량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생태계를 평가하기 때문
- GSER 2026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한 생태계는 실리콘밸리, 뉴욕, 런던, 텔아비브, 보스턴 등임
- 이들 도시는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캐피털 시장과 연구개발 역량, 글로벌 인재, 국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
- 세계 1위 실리콘밸리는 글로벌 혁신생태계의 표준으로 평가받는데 풍부한 벤처캐피털 자본과 스탠퍼드대학교, 버클리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역량, 그리고 글로벌 기술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혁신기업을 지속 배출
- 또한 창업과 실패, 재창업이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기업가정신 문화는 다른 국가들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경쟁우위로 평가되는데, Elon Musk, Reid Hoffman, Peter Thiel 등도 모두 연쇄 창업가(Serial Entrepreneur)로서 미국에서는 창업 경험이 있는 창업자의 후속 창업 성공 확률이 초보 창업자보다 높게 나타나며 연쇄 창업가 비중이 매우 높음

- 가장 큰 강점은 빠르게 유니콘과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케일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 GSER 2026에서 서울은 세계 9위 스타트업 생태계이자 아시아 3위 생태계로 평가함
- 투자 성장성(Funding Momentum) 세계 4위, AI Native Cluster 아시아 4위, 인재 경쟁력(Talent Strength) 세계 top 10 수준으로 평가
- 서울 스타트업 생태계가 새로운 글로벌 경쟁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데 높은 수준의 벤처 캐피탈 투자,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두터운 기관투자 기반, 그리고 고숙련 인재풀 등을 근거로 제시
- 이러한 평가는 서울 생태계가 초기 스타트업 단계에서 성장기업과 스케일업 기업을 배출할 수 있는 단계로 이동하였으며 스케일업 생태계로 진화하였음을 의미
- GSER 2026은 서울의 가장 큰 차별성이 AI와 첨단제조업이 결합된 산업구조라고 평가하였는데 수도권과 더불어 AI, 반도체, 첨단제조업이 긴밀하게 연결된 독특한 구조를 형성
- Startup Genome은 Furiosa AI, Nota와 같은 AI 기업들의 성장 사례를 소개하면서 서울이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AI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NVIDIA,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이 추진하는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사업은 서울의 산업생태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고 분석
- 세계 주요 스타트업 생태계와 비교할 때 실리콘밸리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런던은 금융과 핀테크, 텔아비브는 사이버보안과 국방 기술에 강점을 보이는 것과 서울의 차별성이 뚜렷
- 서울시는 서울산업진흥원(SBA)을 서울시 공식 공공 액셀러레이터로 지정하여 AI와 딥테크, 뷰티, 패션 등 주요 분야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AI Transformation Fund와 서울 AI Tech City 프로젝트를 통해 AI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2026년까지 1만 명 이상의 AI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

ECOSYSTEMS	OVERALL RANKING	PERFORMANCE	FUNDING	TALENT & EXPERIENCE	MARKET REACH	AI-NATIVE CLUSTER	R&D ENGINE	IMPROVEMENT FROM GSER 2025
SILICON VALLEY	1	10	10	10	10	10	5	
NEW YORK CITY	2	10	10	10	10	10	5	
LONDON	3	10	10	10	10	9	10	
TEL AVIV	4	9	8	9	10	10	9	
BOSTON	5	10	9	10	10	10	5	
LOS ANGELES	6 (tied)	9	10	9	9	8	6	2 -1
BEIJING	6 (tied)	10	7	10	9	9	10	
SINGAPORE	8	7	9	8	9	7	6	2 -1
SEOUL	9	7	10	8	8	5	10	
SEATTLE	10	8	5	8	5	10	5	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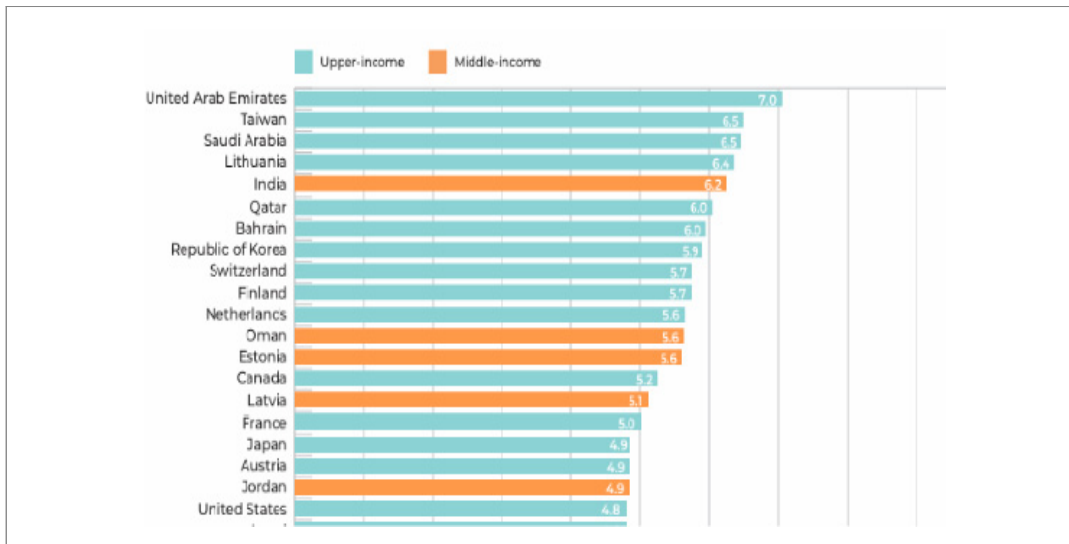
자료 : Startup Genome (2026)

[그림 17] GSER 2026 세계 상위 10개 스타트업 생태계

4)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25/2026 보고서 NECI

- GEM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창업 및 기업가정신 조사 분석기관이며 각 국가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생태계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음
 - 기업가정신은 창업자의 개인적 역량뿐 아니라 금융, 교육, 연구개발, 시장환경, 정부 정책, 사회문화 등 다양한 제도적 환경적 영향을 받는데 GEM은 13개 기업가정신 환경 요인(Entrepreneurial Framework Condition)을 종합하여 산출하는 국가 기업가정신 환경지수(National Entrepreneurship Context Index: NECI)를 발표
- 한국은 GEM 2025/2026 보고서의 NECI 점수 5.9점을 획득, 조사 대상 53개국 중 8위를 기록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군에 속한다고 평가함
 - 한국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스타트업 정책과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13개 평가항목 중 11개 항목이 충분(Sufficient) 수준 이상으로 평가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장 역동성(Easy of Entry: Market Dynamics) 부문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였고 물적 인프라, 정부 정책의 지원성과 적절성, 조세 및 행정환경 등에서도 세계 상위권에 해당하는 평가
 - 한편 학교에서의 기업가 교육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창의성, 도전정신, 문제해결 능력, 혁신역량 등을 육성하는 기업가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규제와 행정부담도 '충분' 평가에 미달

-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인데 5년 연속 세계 1위인 글로벌 기업가정신 환경의 선도국가로 평가
 - UAE의 강점은 창업금융 접근성, 정부 정책지원, 연구개발 성과 이전, 기업가 교육, 물적 인프라 등 거의 모든 평가 분야에서 균형 잡힌 경쟁력을 보유
 - 특히 창업가의 70% 이상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신규 창업자의 75% 이상이 향후 5년 내 고용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
- 대만은 2위를 기록하였는데 강점은 첨단 제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특히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반과 기술사업화 역량이 높은 평가를 받음
 - 대만은 창업자 상당수가 산업현장 경험을 축적한 후 창업에 나서는 구조를 나타내 기술 창업의 생존율과 성장성이 높다는 특징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26)

[그림 18] 2025/2026 GEM NECI 평가 순위 상위권 20개국

2. 국제 비교에 근거한 한국 벤처생태계의 SWOT 분석

- 앞서 살펴본 StartupBlink, Startup Genome, GEM 등 국가별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하여 한국 생태계의 강점과 약점, 기회 요인과 위협요인 등을 제시함
 - 한국 벤처생태계는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 우수한 인적 자원과 높은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벤처천역기업을 양성하여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스케일업 생태계 측면에서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
 - StartupBlink가 제시한 GSEI와 IBEI 평가에서 한국은 각각 20위와 32위에 그쳐 경제 규모 순위 14위에 비하여 저조
 - 서울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세계 상위권 수준이며, 한국의 기업가정신 순위도 상위인 점에서 판단하면, 기업이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데 제약 요인이 되는 약점을 해소하고 위협 요인을 극복한다면 많은 벤처천역기업들이 글로벌 유니콘이 되는 기폭제로 작용 가능
- 첫 번째 강점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첨단 제조업 기반과 대기업 공급망에 있음
 - 한국은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국가이며, 특히 반도체와 ICT 제조업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에 딥테크 벤처기업이 기술을 사업화하고 시제품을 양산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 이러한 환경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콘텐츠, 게임, 핀테크,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
 - 특히 벤처천역기업은 초기 스타트업과 달리 일정한 고객과 조직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디지털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시장에서 제품 고도화와 서비스 확장, 데이터 축적을 비교적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음
- 두 번째 강점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첨단 제조업 기반과 대기업 공급망임
 - 한국은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국가이며 특히 반도체와 ICT 제조업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기반이 딥테크 벤처기업이 기술을 사업화하고 시제품을 양산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기 좋은 여건이 형성
 - 미국이나 싱가포르가 금융과 글로벌 네트워크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면 한국은 제조 기반 기술사업화와 양산 역량에 강점

- 따라서 벤처천역기업 정책은 이러한 제조업 기반을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벤처기업의 글로벌 기술기업화 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활용할 필요
- 세 번째 강점은 높은 연구개발 투자와 우수한 이공계 인력임
 -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세계 최상위권이며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기업 연구소를 중심으로 상당한 기술 축적을 이루었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기술 역량이 충분히 창업과 성장기업 창출로 연결되지 못함
 - 따라서 향후 벤처천역기업들의 연구개발 성과는 단순히 논문이나 특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술 고도화, 신제품개발, 글로벌 특허전략,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유념
- 반면 가장 큰 약점은 글로벌 시장지향성이 부족하다는 점임
 - 한국 스타트업은 국내시장에서 빠르게 제품을 검증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능력은 우수하지만,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사업모델을 설계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음
 - 이스라엘과 싱가포르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창업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벤처천역기업이 내수시장을 탈피하여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작용
- 두 번째 약점은 후기단계 성장금융이 부족하다는 점임
 - 한국은 창업 초기 투자와 정책금융, 모태펀드 기반 벤처투자는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으나 벤처천역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 해외 인수합병, 대규모 연구개발,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수천억 원 규모의 성장자본은 크게 부족
 - 이로 인하여 일부 기업은 국내시장에서는 성공하더라도 글로벌 경쟁기업과의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성장단계에서 외국 자본에 의존
- 세 번째 약점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해외 인재 유치 역량의 부족임
 - 벤처천역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 역량 외에도 글로벌 고객, 해외 투자자, 현지 파트너, 글로벌 회계 및 법률 전문가, 해외창업자 네트워크와 연결이 중요
 - 한국 벤처생태계는 영어 기반 비즈니스 환경, 해외 전문 인력유입,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 측면에서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게 미약
 - 이는 한국 벤처천역기업이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도 세계 시장 확장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 한국 벤처생태계가 직면한 기회 요인은 인공지능 혁명,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 전략산업 경쟁 심화 등은 위기 요인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임

- 특히 대기업 중심 제조업 공급망과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이 조화롭게 결합한다면 딥 테크 기반 벤처천역기업을 대량으로 육성하는 기회
- 또한 아시아 시장의 성장, K-콘텐츠와 디지털 서비스의 글로벌 확산, 한국 제조업 브랜드 신뢰도는 한국 벤처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긍정적 기회 역할
- 그러나 동시에 위협요인도 확대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격화, 주요국의 전략산업 보조금 경쟁 증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인공지능 기술격차 확대는 한국 벤처기업에게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함
-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이스라엘은 이미 글로벌 자본과 인재, 유니콘 생태계를 선점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하면서 한국을 위협

<표 8> 국제기관의 스타트업 생태계 비교 평가에 기초한 한국 벤처생태계 SWOT 분석

구분	주요 내용	벤처천역기업 및 유니콘 육성에 대한 함의
강점(S)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반도체·배터라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 기반, 높은 연구개발 투자, 우수한 이공계 인력, 대기업 공급망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	딥테크 기반 벤처천역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적 토양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기술사업화와 제조 스케일업에 유리한 조건 보유
약점(W)	글로벌 시장 지향성 부족, 후기단계 성장자본 부족, 해외 투자자·글로벌 네트워크 취약, 실패 부담과 재도전 문화 부족, 규제·노동시장 경직성	벤처천역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병목현상 발생, 대규모 스케일업 금융과 글로벌 확장 전략 보완 시급
기회(O)	AI 혁명,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산업 경쟁 심화, 동아시아·동남아 시장 성장	AI·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분야에서 한국형 유니콘 창출 가능성이 상승, 벤처천역기업을 대체 불가능한 성장축으로 활용
위협(T)	미국·중국 기술 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 주요국 보조금 경쟁, 해외 생태계의 인재·자본 흡수, 중국·일본·싱가포르의 빠른 생태계 성장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을 지체할 경우 우수한 기업과 인재가 해외로 이동하거나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를 상실할 위험

3. AI 벤처투자 동향 국제 비교

- AI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으로 들어오는 투자 규모는 주요국에 비하여 적은 수준에 그침
 - 투자는 시장이 느끼는 기업의 매력도와 경쟁력의 결과이며 산업생태계에 대한 평가
- 세계 벤처투자액 중 AI 분야에 투자된 비중은 2025년 1~3분기중 55.7%로 2015년 20%에서 급증하였음
 - 2025년 1~3분기까지 전 세계에서 AI 분야에 투자된 벤처투자액은 총 1,584억 달러로 2015년 400억 달러에 비해 약 4배 증가
 - 생성형 AI가 본격화된 2023년을 기점으로 급증하였으며, 글로벌 벤처투자의 절반 이상이 AI로 집중되는 상황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2025)

【그림 19】 전세계 AI 분야 벤처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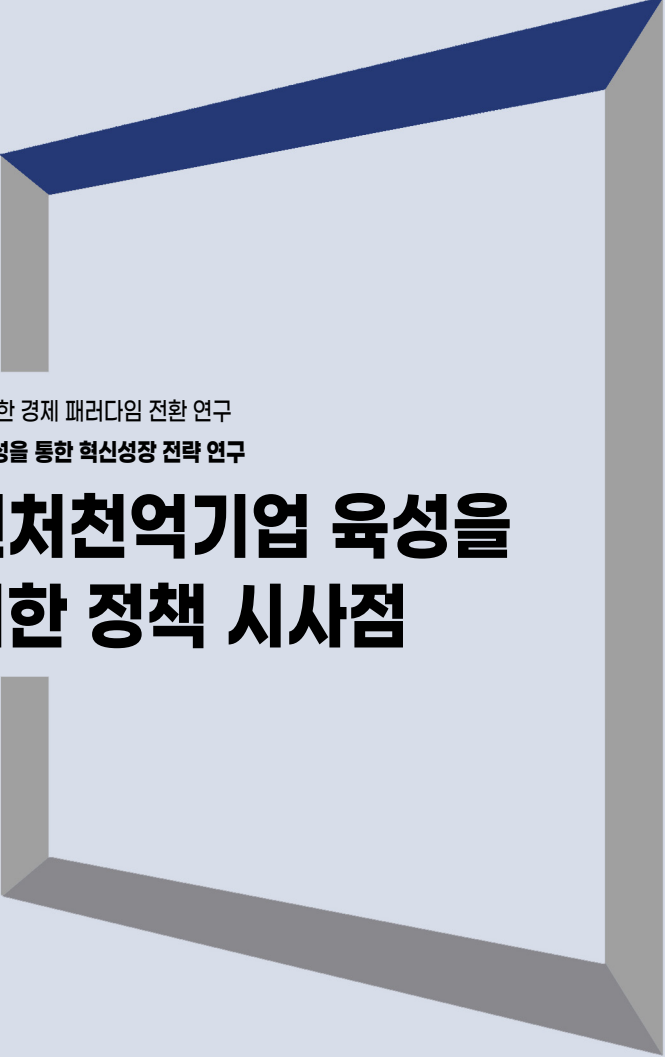
- 국가별로는 2025년 1~3분기 AI 분야 벤처투자액 중 1,584억 달러 중 72%인 1,140억 달러가 미국기업에 투자됨
 - 이는 2024년 64.4%이었던 상황에 비해 미국기업 쏠림현상이 더 심화
 - 영국은 115억 달러, 중국은 90억 달러의 AI 분야 벤처투자를 유치
 - 한편 한국은 15억 7,000만 달러로 9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약 1/73, 중국의 약 1/6 수준

- 투자자금의 출처가 해외인지, 아니면 자국 내인지에 대한 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자국 내 벤처투자 시장이 큰 미국과 자국 정부 차원의 지원이 풍부한 중국은 순위가 낮았고, 한국도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 해외 자본유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영국으로 전체 투자유치액의 87%를 자국이 아닌 타국의 벤처캐피털에서 유치하였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79%, 73% 등 유럽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비중이 높음
- 영국의 투자유치액 1위 기업인 '웨이브(Wayve)'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프랑스의 '미스트랄(Mistral)'은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등 해외 자본유입이 중요한 역할
- 한국의 AI 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Rebellion)'은 총 1억 4,000만 달러를 유치하였으나, 글로벌 선도기업과는 큰 격차

〈표 9〉 AI 분야 벤처투자 유치 상위 12개국 현황

순위	국가	투자유치액(2025년 1~3Q 누적)	
		액수(억 달러)	비중(%)
	전세계	1,584.6	100
1	미국	1,140.4	72.0
2	영국	115.1	7.3
3	중국	90.7	5.7
4	프랑스	31.9	2.0
5	독일	27.2	1.7
6	이스라엘	26.1	1.6
7	캐나다	20.9	1.3
8	인도	15.7	1.0
9	한국	15.7	1.0
10	싱가포르	11.4	0.7
11	스페인	10.2	0.6
12	일본	9.5	0.6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2025)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벤처천역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전략 연구

Ⅶ. 벤처천역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시사점

Ⅶ. 벤처천역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시사점

1. 정책 방향 미세조정의 필요성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벤처생태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첨단제조업 경쟁력,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비교 결과는 경제 규모와 기술 수준에 비해 벤처생태계의 경쟁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StartupBlink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세계 20위권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혁신기업가 친화적 환경수준 평가에서는 30위권 수준으로 평가
 - 또한 Startup Genome은 서울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도시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시장 접근성과 성장 자본, 국제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개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GEM은 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이 미흡하고 창업 관련 규제와 행정부담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
- 이러한 평가는 한국 벤처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에 도달하였음을 시사함
 - 벤처기업 수와 벤처투자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고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양적으로는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대체 불가능한 영역을 개척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분명해 짐
 - 다수의 창업기업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성장기업으로 발전하는 비율은 제한적이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 수 역시 주요 경쟁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수준
- 이제 벤처정책의 초점은 창업기업 수 확대에서 성장기업 육성과 생태계 개선으로 이동해야 함
 - 과거 벤처정책의 목표가 스타트업의 많은 창출과 육성에 초점이 두어졌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벤처천역기업이 성장하여 글로벌 유니콘으로 발전하는가가 더 중요
 - 생산성과 혁신, 수출, 양질의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성장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
- 특히 벤처천역기업은 스타트업과 유니콘을 연결하는 중간허리층으로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짐

- 스타트업이 혁신의 출발점이라면 벤처천역기업은 혁신을 산업화하고 시장화하는 핵심 주체이며 유니콘기업은 이러한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벤처정책은 스타트업 중심정책과 유니콘 중심 정책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성장단계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강화되도록 설계될 필요
- 또한 그동안 한국 벤처정책은 정부주도와 민간주도 사이를 반복하는 정책의 진자현상을 경험함
-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기에는 시장기능이 약화되고 반대로 민간 중심을 강조하는 시기에는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반복
- 정부와 민간을 상호보완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벤처의 본질적 성격을 감안하여 민간의 투자와 기업 선별, 시장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는 규제철폐와 성장 금융,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시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구축
- 벤처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벤처천역기업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생산성과 수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화함으로써 창업국가(Startup Nation)를 넘어 고성장국가(High Scaleup Nation)로 전환하는 국가전략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2. 벤처천역기업 중심 성장사다리 구축 전략

- 현재 한국 벤처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성장사다리(growth ladder)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임
 -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 지원과 벤처투자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장 단계로 진입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오히려 규모 확대에 인한 공정 거래법상의 대기업 관련 규제를 우려하는 피터팬 증후군 가능성
 -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창업과 초기 성장에는 성공하지만 벤처천역기업 단계로 진입하거나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성장 정체 경험
- 벤처천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핵심은 성장의 병목현상을 제거하는 데 있음
 - 기업이 매출 1천억 원 규모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과제는 자금 조달, 글로벌 시장 진출, 전문 인력 확보, 연구개발 고도화 등 다양한데 정부는 성장 금융 공급 확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연계, 해외시장 진출 플랫폼 구축, 고급 기술 인력 확보 지원 등을 통해 성장장벽을 해소할 필요
 - 특히 후기단계 투자시장 활성화와 대규모 스케일업 펀드 조성은 벤처천역기업 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연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 자본의 투입에는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음
- 벤처천역기업 정책은 단순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국가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
 - 벤처천역기업은 생산성과 혁신, 수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업 군으로 실제로 많은 벤처천역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인력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
- 향후 정책평가 기준을 변화시킬 필요도 있음
 - 지금까지는 창업기업 수, 벤처 투자 규모,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이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벤처천역기업 수, 벤처천역기업 매출 증가율,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과, 유니콘 전환율,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이 핵심 지표로 활용될 필요
- 결국 한국형 벤처천역기업 정책의 새로운 목표는 더 많은 스타트업을 만들어 내면서 더 많은 벤처천역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야 함
 - 벤처천역기업이 증가할수록 유니콘 기업 출현 가능성도 높아지고 수출과 고용도 늘어나며 벤처생태계의 성숙도와 선순환 구조가 형성

3. 글로벌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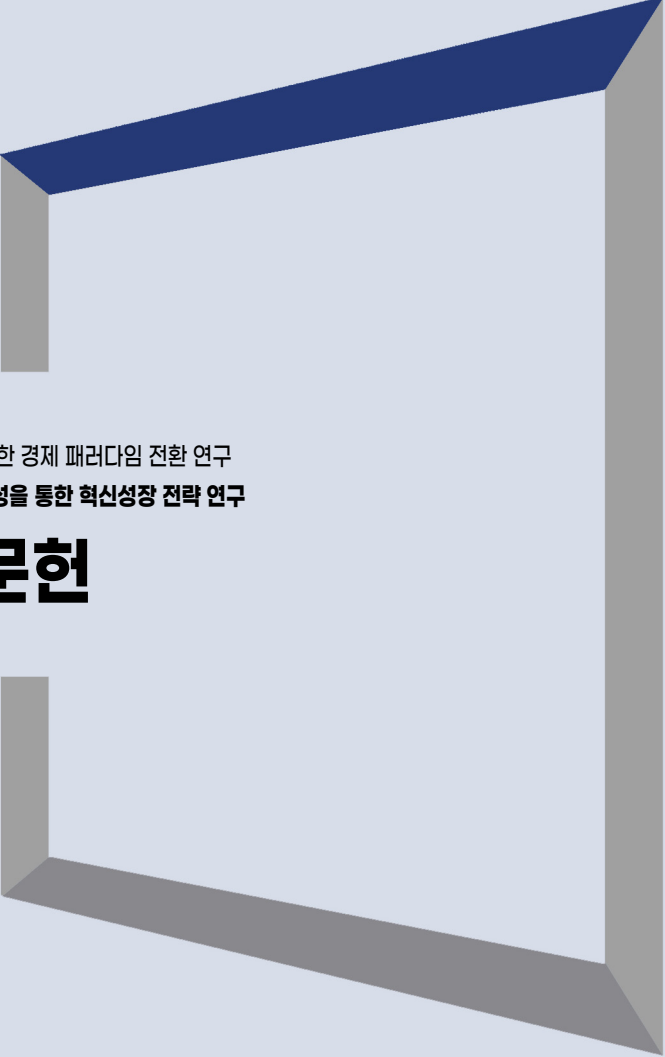
- 한국 벤처생태계의 비교 평가 결과에서 글로벌 시장 접근성(Market Reach), 국제 네트워크(Connectedness), 성장단계 자본시장 등 측면이 약점으로 지적됨
 - 이는 앞으로 벤처정책이 글로벌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에 더욱 힘써야 함을 시사함
- 글로벌 스케일업 생태계란 창업기업이 성장단계를 거쳐 벤처천억기업으로 발전하고, 다시 글로벌 유니콘기업과 세계적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금융적·문화적 환경을 의미함
 - 실리콘밸리와 이스라엘, 런던, 싱가포르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업기업 수가 많아서라기보다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확장 할 수 있는 스케일업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
 - 글로벌 투자자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세계적인 유니콘기업들은 대부분 특정 국가의 자본에 의존하기보다는 글로벌 벤처캐피털과 전략적 투자자, 해외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적극 활용하며 성장
 - 반면 한국은 여전히 국내 자본 중심의 투자구조가 강하며 해외 투자자 참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따라서 글로벌 VC와 해외 기관투자자의 국내 투자 참여를 확대하고 벤처천억기업이 해외 투자자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국제 투자 플랫폼을 적극 활용
- 해외시장 진출 지원체계를 지금까지의 수출상담회나 전시회 참가 등 소극적 지원 위주에서 현지 법인 설립, 글로벌 인재 확보, 현지 기업 인수합병, 현지 투자 유치 등 보다 전략적이며 적극적인 전방위 접근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함
 - 특히 인재 확보는 AI, 바이오헬스, 반도체,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산업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스케일업 생태계 구성 요소인데 한국은 해외 전문인력 유치와 글로벌 창업자 확보 측면에서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
 - 따라서 벤처천억기업이 해외 전문인력을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 정주 환경 개선,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벤처천억기업을 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임
 - 유니콘은 스타트업 단계가 아니라 스케일업 단계 기업에서 탄생하며 성장잠재력이 검증된 벤처천억기업과 같은 성장기업군에서 출현

4. 벤처천역기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 최근 신산업정책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생산성과 혁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임.
- 과거 산업정책은 경제성장을 제고와 수출 확대, 기술개발 등에 주로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
-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생산성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책설계와 시행이 중요
- 이와 관련하여 하버드대학교의 대니 로드릭 교수는 신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이는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전환 등과 같은 첨단산업의 발전이 반드시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벤처천역기업은 창업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하여 고용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스타트업은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조직규모가 작고 고용 규모 역시 제한적임
- 벤처천역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과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 생산, 마케팅, 글로벌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인력 수요를 창출
- 벤처천역기업은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비중이 있음
- 현재 한국의 혁신역량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역에 기반을 둔 벤처천역기업이 증가할 경우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고도화가 가능
- 대전 연구개발 클러스터, 충청권의 바이오산업, 영남권의 미래모빌리티 산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된 벤처천역기업은 지역균형발전의 동력 자원
- 향후 한국의 신산업정책과 벤처정책은 벤처천역기업을 국가 성장전략의 앵커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기술혁신과 포용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정책 거버넌스 혁신과 정책의 진자현상 극복

- 한국 벤처정책은 지난 30여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와 기술 수준에 비하여 글로벌 유니콘이 적고, 벤처생태계의 조성 수준이 미약
 -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성장 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 부족에 더하여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존재
- 한국 벤처정책은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정책의 진자현상을 경험
 -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지원 방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벤처기업과 투자자들이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어려웠음
 - 통상 스타트업이 벤처천억기업으로 성장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비하여 정책은 정권 교체에 따라 5년 단위로 변화하며 성장단계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장기적 정책체계는 미흡
- 향후 벤처정책은 정부와 민간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는 데 두어져야 함
 - 정부는 장기적 연구개발 투자, 성장 금융 지원, 규제혁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인재 양성 등 시장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실패 영역에 집중하고 투자와 기업 선별, 사업모델 평가, 시장검증 등은 민간이 주도하면서 정책 안정성과 시장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
 - 그렇지만 성공적인 벤처생태계는 정부 또는 민간 중 어느 한쪽의 역할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결합할 때 구축될 수 있으므로 이분법적 논쟁에 함몰되지 않도록 유의
- 벤처천억기업은 정부 정책 거버넌스의 핵심 대상이 되어야 함
 - 벤처천억기업은 혁신을 산업화하고 시장화하는 과정에서 핵심 성장 허리층이므로 창업 정책, 산업정책, 지역정책, 고용정책, 통상정책을 연계하는 통합적 정책체계를 구축하여 육성
 - 결국 한국 벤처정책은 일관성 있는 성장전략을 구축하여 '창업-성장벤처-벤처천억기업-유니콘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완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세계 수준의 벤처천억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전략 연구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맹수. (2018, 8월 20일). KDB 벤처지수 개발과 시사점. Weekly KDB Report, 1-7. KDB산업은행.
- 고영선. (2024).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KDI FOCUS 제130호). 한국개발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 (2025,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기획재정부.
- 기업가정신학회. (2025, 11월). 30년 벤처생태계 성장과 발전방안 연구.
- 김꽃별, & 박지환. (2023, 6월). 스케일업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국제비교 및 진단. Trade Focus, 2023년 08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김나미, & 이종선. (2025). 사내벤처가 전략적 일탈과 기업가적 문화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47(2), 5-23. <https://doi.org/10.36491/APJSB.47.2.1>
- 김민호. (2026).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KDI FOCUS 제151호). 한국개발연구원.
- 김민호, 정성훈, 김현희, 이송미, 임수민, & 송단비. (2025, 12월). 도약(Jump-Up)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김여림. (2025). 벤처확인제도 개편에 따른 확인유형의 변화와 시사점 (Issue Paper 2025-09). 산업연구원.
- 김현열. (2025, 12월 20일). 벤처투자 출자자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금융브리프, 35(1), 3-9. 한국금융연구원.
- 문희진, 곽혜민, & 이주일. (2024). 벤처기업의 신호가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 투자 담론의 역할. 중소기업연구, 46(4), 59-86. <https://doi.org/10.36491/APJSB.46.4.3>
- 박문수, & 이순학. (2024, 6월). 신산업정책 연구: 신산업 스타트업 정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06-0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박문수, 김승민, & 박나연. (2025). 한국 벤처생태계 담론 변화 및 정책 제언: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2025-21). 산업연구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727호. (2025, 1월 31일 타법개정, 2026년 2월 1일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286호. (2025, 12월 30일 일부개정, 2026년 7월 1일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벤처기업협회. (2025a). 벤처기업 산업구조 변화 분석: 최근 10년간의(2014-2024년) 동향과 주요 특징. 벤처기업협회.
- 벤처기업협회. (2025b, 7월). 벤처기업 산업구조 변화 분석: 최근 10년간의(2014-2024년) 동향과 주요 특징.
- 벤처기업협회. (2025c, 12월). 2025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유세현, & 진병채. (2025). 벤처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원으로서의 벤처기업. 중소기업연구, 47(3), 137-150. <https://doi.org/10.36491/APJSB.47.3.6>
- 장근호, 최기산, 서재용, 이형석, 김진영, & 김용수. (2025, 12월 8일).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2025년 11월 경제전망보고서(Indigo Book): 중장기 심층연구. 한국은행.
- 조윤정. (2020, 4월 6일). KDB벤처지수를 통해 살펴본 국내 벤처생태계. Weekly KDB Report, 4-6.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확인기관. (2024, 11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가이드북: 제도 소개 및 확인신청 가이드.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확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협회. (2025, 11월). 2024 벤처천역기업조사.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2022, 11월). 주요 선진국의 창업·벤처 통계 비교 분석 (조사연구-2022).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 진형석. (2024, 5월 22일). 스타트업의 수출 현황 및 수출 활성화 정책 제언: Startup Branch 개소 5주년 기념 보고서. Trade Focus, 2024년 21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최현희. (2022, 3월). 코로나19 이후 해외 스타트업 정책동향과 주요 변화. 산은조사월보, 796, 3-28. KDB미래전략연구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주요 지원정책. In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분석 (pp. 71-7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해외 문헌

- Balsmeier, B., Fleming, L., Marx, M., & Shin, S. R. (2024). Startups, unicorns, and the local inflow of inventors (NBER Working Paper No. 2760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erger, M., Calligaris, S., Dechezleprêtre, A., Dernis, H., Greppi, A., Kirpichev, D., & Muñoz Alvarado, A. (2026). The OECD Start-ups Database: A new lens on global entrepreneurial ecosystem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s No. 2026/04).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be8e5317-en>
- Berger, M., Dechezleprêtre, A., & Fadic, M. (2024). What is the role of government venture capital for innovation-driven entrepreneurship?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s No. 2024/10).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6430069e-en>
- Calvino, F., Costa, H., Manaresi, F., & Scholl, N. (2025). Young firms, job quality and inclusivenes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s No. 2025/08).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a6bb0f3a-en>
- Calvino, F., Criscuolo, C., & Menon, C. (2016). No country for young firms? Start-up dynamics and national policie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Policy Papers No. 29).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5jm22p40c8mw-en>
- CB Insights. (2026). The largest startup deaths since 2023: Book of post-mortems. CB Insights.
- Davydova, D., Fahlenbrach, R., Sanz, L., & Stulz, R. M. (2024). Why do startups become unicorns instead of going public? (NBER Working Paper No. 3060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Djankov, S., La Porta, R., Lopez-de-Silanes, F., & Shleifer, A. (2000). The regulation of entry (NBER Working Paper No. 789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Ma, S., Murfin, J., & Pratt, R. D. (2021). Young firms, old capital (NBER Working Paper No. 2918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OECD. (2021). Understanding firms' growth: Helping SMEs scale up. OECD Studies on SMEs and Entrepreneurship. OECD Publishing.
- OECD. (2023). 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Korea 2023.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bdcf9685-en>
- OECD. (2025). Benchmarking government support for venture capital: A comparative analysis (OECD SME and Entrepreneurship Papers No. 71).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81e53985-en>
- OECD. (2026). Venture capital invest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2025. OECD.
- Rodrik, D. (2022). An industrial policy for good jobs. The Hamilton Project, Brookings Institution.
- Schreyer, P. (2000). High-growth firms and employment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s No. 2000/03).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861275538813>
- StartupBlink. (2025). Global Startup Ecosystem Index 2025. StartupBlink.
- StartupBlink. (2026). Innovators Business Environment Index 2026. StartupBlink.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2026, 2월 27일). 벤처 보육프로그램 간의 칸막이를 없애 비수도권에 대한 벤처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2026, 3월 5일).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펀드(BDC)」 제도가 시행됩니다 [보도자료].
- 기술보증기금. (2026, 3월 3일). 기보, 중기부·벤처기업협회와 협력해 'AX혁신지수' 자가진단 서비스 실시 [보도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25, 11월 21일). 벤처캐피탈 투자 애로요인 및 정책과제 조사 [보도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25, 12월 18일). 글로벌 AI 벤처투자 동향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도자료].

-
- 벤처기업협회. (2025, 4월 23일). 벤처기업협회, 「2024년 벤처기업 무역동향」 발표 [보도자료].
 - 벤처기업협회. (2025, 7월 24일).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산업구조 변화 분석」 발간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벤처기업협회. (2025, 11월 27일). 혁신으로 키운 벤처천역, 1,000개 탄생 초읽기 [보도자료].

웹페이지

- 국가데이터처. (2026, 3월 5일).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95
- CB Insights. (n.d.). The complete list of unicorn companies. Retrieved March 10, 2026, from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 CB Insights. (2026, March 5). The top 9 reasons startups fail.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research/report/startup-failure-reasons-top/>
- Founders Forum Group. (2025, May 12). Unicorn companies 2025: Global list, stats & valuation insights. <https://ff.co/unicorn-companies-2025/>

■ 집필진 전수봉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벤처천연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전략 연구

발행인 윤덕룡

발행일 2026년 7월

발행처 경기도일자리재단
(165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Tel. 031-270-9600 Fax. 031-270-9732
홈페이지: www.gjf.or.kr

편집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70
(문래동3가, 우리벤처타운2) 409, 904, 905호
Tel. 02-2672-1535
E-mail. yb1555@yeobaek.com

ISBN 979-11-24368-23-7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Gyeonggi-do Job Foundation

대표전화 | 031-270-9600

재단 | <https://www.gjf.or.kr>

꿈날개 | <https://www.dream.go.kr/dream>

잡아바 | <https://www.jobaba.net>

꿈마루 | <https://www.dreammaru.or.kr>

